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4

디모데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디 모 데 전 서

1 Timothy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6:11, 12)

Σὺ δέ, ὦ ἄνθρωπε θεοῦ, ταῦτα φευγε· δίωκε δὲ δικαιοσύνην, εὐσέβειαν, πίστιν, ἀγάπην, ὑπομονήν, πραῦπαθίαν. ἀγωνίζου τὸν καλὸν ἀγῶνα τῆς πίστεως, ἐπιλαβοῦ τῆς αἰωνίου ζωῆς, εἰς ἣν ἐκλήθης καὶ ὡμολόγησας τὴν καλὴν ὁμολογίαν ἐνώπιον πολλῶν μαρτύρων.

디모데전서 차례

디모데전서 서론	〈17제〉	537
제 1 장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경고와 권면	〈20제〉	545
제 2 장 교회 내에서의 기도와 규율	〈13제〉	555
제 3 장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19제〉	562
제 4 장 올바른 목회를 위한 지침	〈17제〉	572
제 5 장 목회 행정과 목회자의 태도	〈22제〉	581
제 6 장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	〈27제〉	592

디모데전서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화보 자료〉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 훈련	554
제 2 장 〈화보 자료〉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	561
제 3 장 〈연구 자료〉 원어로 살펴본 집사의 제 기능	571
제 4 장 〈본장의 요절〉	580
제 5 장 〈본장의 요절〉	591
제 6 장 〈연구 자료〉 교회의 특성	603

디모데전서 서론

1. ㉠ 목회 서신이란 무엇인가?

- ㉠ (1)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전통적으로 ‘목회 서신’ (The Pastoral Epistles)이라 불리어진다. 왜냐하면 이 서신들이 목회적 성격, 곧 교회의 목회 사역에 관한 원리들과 목회자의 자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 (2) 이 세 서신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그 문체(文體)와 교리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한 묶음으로 간주되어 왔다.
- (3) 그런데 이 세 서신들이 ‘목회 서신’이란 명칭을 갖게 된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7-1274)가 ‘이 세 서신은 하나같이 목회 규칙을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언급한 데서 기인했다. 그러나 1726년 폴 안톤(Paul Anton, 1661-1730)이 명명한 ‘목회 서신 강의’란 일련의 강의를 통해 ‘목회 서신’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1849년 영국의 성경 학자 헨리 알포드(Henry Alford, 1810-1871)가 ‘목회 서신’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창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2. ㉠ 목회 서신의 진정성(眞正性)에 대해 논하라.

- ㉠ (1) 목회 서신이 진정한 바울의 저작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외적 증거는 많다.
- (2) 즉 유세비우스(Eusebius)는 그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저서로 알려졌던 14개의 책 중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확인했으며 A. D. 170년경의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에도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세 서신이 바울의 저서로 인정되어 있다.
- (3) 또한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15-200?)는 그의 저서 ‘이단 반대론’에서 거듭 이 서신들을 언급하였다(1:4; 딤후4:21; 딤후3:10). 더우기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는 디모데전·후서가 이단자들의 오류를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자들은 이 서신들을 거부한다고 말하면서 이 서신들의 정경성을 옹호하였다.
- (4) 한편 목회 서신에 대한 내적 증거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서신들에 나타나 있는 단어들과 각 귀절들의 어조와 감정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일치하며 서두 인사와 말미 인사들도 서로 비교해 보면 동일 저작자의 서신임을 알 수 있다(참조, 갈6:18; 엡1:1,2,24; 빌1:1,2).
- (5) 그리고 목회 서신에 제시된 기록자 자신의 복음 설교자로서의 사명과 복음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다른 바울 서신들과 유사점이 있다(롬1:5, 14-17; 고전1:17; 갈1:1-5; 엡3:7-12).
- (6) 그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개종에 대한 암시가 다른 바울 서신들처럼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목회 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1:12, 13; 고전15:9; 엡3:8).
- (7)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회 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입증해 주는 내적 증거는 그 내용 중에서 저자가 자신을 바울이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1; 딤후1:1; 딤후1:1).

3. ㉠ 목회 서신의 진정성에 반대하는 이론들에 대해 서술하라.

- ㉠ (1) 목회 서신의 진정성은 일반적으로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그노시스파인 마르시온(Marcion)에 의하여 그것이 자신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이유로써 그 진

정성이 거부되었다.

- (2) 더우기 19세기 유럽의 비평학자들 중 슈미트(Johann Schmidt)와 슐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 등은 목회 서신의 바울 저작설을 부정했으며 바우어(F.C.Baur)는 목회 서신이 2세기의 반(反)그노시스파 인물에 의해 그노시스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기록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3) 그들의 반론(反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울의 생애 중 목회 서신을 기록한 시기와 장소가 불분명하다.
- (4) 둘째, 목회 서신에 나타난 많은 단어들(감독, 장로, 집사라는 교직 용어 등)과 도덕적인 충고를 위주로 한 교훈들이 다른 신약 제서(諸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목회 서신과 다른 신약 제서(諸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바울의 나머지 10개의 서신에서는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바울의 독특한 어투(강력하고 호소력 있는 어투)들이 목회 서신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5) 셋째, 목회 서신에는 바울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교리(義)의 사상과 성령의 내재적 활동 등이 목회 서신에서는 다루이지 않음)와 바울이 주장하는 신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픈(주로 교훈적 측면만을 다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색채보다는 도덕적이며 전통적 관행(慣行)에 관심을 두고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 (6) 그러나 이러한 여러 주장들은 편협한 주장(바울이라는 인물과 그 사역을 제한시켜 해석함)일 뿐 목회 서신이 지니고 있는 독특성을 무시한 견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사실 단어 선택의 문제 같은 경우 아무리 동일 저자라 하더라도 취급하고 있는 주제가 다를 경우 단어가 각각 독특할 수밖에 없다.
- (7) 그리고 바울의 저작 시기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조차 역사적으로 애매한 기간들이 많았는데 하물며 저작 시기의 문제들이야 그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 (8)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회 전선에서 직접 활약하고 있던 자들(디모데, 디도를 위시한 목회자들)을 향해 목회의 윤리와 방법론 등에 관해 이야기해야 되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들을 세세히 취급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무시하는 윤리를 제시한 것은 결코 아니다.

4. ㉠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된 뒤 바울의 행적을 서술하라.

- (1) 바울은 로마 자기 셋집에서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 투옥시키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왜냐하면 그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로마 법률에 의하면 황제에 법정에서 상소한 후 2년 내에 소추(訴追)하지 않으면 피고는 자동 석방되었다).
- (2) 바울은 석방되자마자 곧 디모테를 빌립보로 보내어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하였는데(빌 2:19-23) 그때가 대략 A.D. 63년경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64년 7월에 있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의 석방이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한편 에베소에 도착한 후 그는 인근에 위치한 골로새 지방까지 여행했으며(몬 1:22)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온 디모테를 만났다. 그때 그는 디모테에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교회를 목양할 것을 권한 후 계획했던 대로(1:3; 빌 2:24) 마게도냐로 갔다.
- (4) 마게도냐 지방에서 그는 디모테에게 편지(디모데전서)를 썼다(참조, 1:3).
- (5)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를 향한 여행길에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 두어 그곳 교회의 조직을 완료시키도록 하였다(참조, 딤후 1:5).
- (6) 그리고 그는 아가야의 니고볼리를 향해 전도 여행을 떠났으며 거기서 디도서를 기록

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니고볼리(이고니아 바다 동쪽 해안에 위치)에서 디도를 만나기 원했으며 자신은 그곳에서 겨울을 지낼 것을 언급하였다(딤후3:12).

- (7) 니콜볼리에서 겨울을 지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었던(행 20:4; 21:29; 딤후4:20)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가 병들었으므로 그를 밀레도에 남겨 두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딤후1:4).
- (8) 그 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가보를 방문하여 자신의 외투를 그곳에 맡겨 둔(딤후4:13) 뒤 에라스도가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를 경유하여(딤후4:20) 계속적인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체포되어 로마로 갔다.
- (9)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체포되어 로마에 도착한 때는 아마도 네로의 기독교인 박해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가 어디에서 체포되었는지(드로아, 고린도, 로마?)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 (10) 그러나 로마 감옥에 재차 투옥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빨리 오라고 편지(디모데후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그에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기록한 것이다(딤후4:6-11).
- (11) 그리고 그는 A.D. 67년에 로마의 형장에서 순교하였다.

5. **Q** 목회 서신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A** (1) 에베소와 그레데에서 각각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 앞으로 보낸 목회 서신의 기록 연대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있으나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친 후부터 순교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2)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된 때를 62-63년경으로 본다면 석방된 후 계속적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기록한 디모데전서를 6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가 로마에 재투옥되기 직전과 직후에 각각 기록한 디도서와 디모데후서는 순교(67년경) 전인 66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Q**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 A** (1)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 교회는 열화와 같은 전도열로 인해 곳곳에 지역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관계로(지도자의 부족이 그 원인)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이 침투하게 되었다.
- (2) 이처럼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그 시기에 벌써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으로 인한 분란이 일어났다. 이에 바울은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변호하며 교인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그 당시 목회에 주력하고 있던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 목회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
- (3) 즉 바울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참조, 요일4:1-3) 도덕 폐기론을 주창하던 영지주의자들의 헛된 가르침과 편협한 유대주의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회 서신을 기록하였다(참조, 1:4-7; 딤후2:23-26; 딤후1:1-13).
- (4)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도전 뿐 아니라 영적 나태로 인한 내부로부터의 신앙적 와해를 막고 경건의 훈련과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고양하기 위해 목회 서신을 기록하였다(참조, 5:1-25; 딤후3:14-17; 딤후2:1-10).
- (5) 계속해서 바울은 양적인 성장을 이룩한 교회들이 아직 미성숙하고 또한 지도자들의 수준이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교직 제도와 그에 따른 교역자들의 자질을 규정하기 위해 목회 서신을 기록하였다(참조, 3:1; 딤후1:5).
- (6) 물론 이러한 공식적 목적 이외에도 복음의 동역자이며 인생의 후배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각각 따듯한 위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정(情)을 나누기 위해 펜을

들었다(참조, 1:8-20; 딤후3:1-4:8; 딤텔3:3-11).

7. **㉠** 목회 서신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신학 사상에 대해 논하라.

- ㉠** (1) 먼저 신론(神論)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대부분의 첫머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나 목회 서신에서는 그 같은 말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 서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내용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참조, 6:17; 딤후1:7).
- (2) 특히 1:17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영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가능하다(참조, 6:15,16).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전과정을 통괄하고 계신 분으로서(참조, 4:10; 딤텔1:13; 2:10; 3:3,4) 이 땅의 심판주가 되시기도 한다(참조, 딤후4:8).
- (4) 다음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수는 참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참조, 1:15). 그분은 인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긍휼을 베푸셨다(1:16).
- (5) 더우기 그분은 기독교의 중심점에 위치하며 우리 믿는 자들의 주인이시며(6:15) 또한 구주가 되신다(참조, 딤후1:10; 딤텔2:13; 3:6). 이러한 사실의 증거로서 그분은 인류의 재속을 위한 제물로서 스스로 희생하셨으며(참조, 2:5,6) 영생의 보장을 위해 부활하셨다(참조, 딤후2:8).
- (6) 한편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 목회 서신에는 성령에 관한 기사가 드물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성령에 관해 언급된 기사는 주목할 만하다. 즉 목회 서신의 내용 중에는 성령께서 후일에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날 것임을 예고하실 정도로 교회의 역사를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과(참조, 딤후1:14) 그분은 각 사람의 구원의 동인이 되신다(참조, 딤텔3:5)는 것 등의 심도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 (7) 이와 같이 비록 목회 철학과 교직 제도 및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목회 서신이지만 이 모든 사상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다른 어느 부분 못지않게 풍부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8. **㉠** 목회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 ㉠** (1)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다른 편지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분명한 차이점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교회 앞으로 쓰여진데 반해 목회 서신은 빌레몬서의 경우처럼 개인 앞으로 쓰여진 서신이라는 점이다.
- (2) 그러나 목회 서신이 표면상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편지 이상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 (3) 그 점에 있어서는 목회 서신의 주된 목적이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치리(治理)에 관해 지침(指針)을 주고 있는 서신이라는 사실로써 잘 알 수 있다(참조, 3:15).
- (4) 이처럼 목회 서신이 개인에게 전달된 서신이라 하더라도 그 취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아 분명히 공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서신들은 교회의 유익을 꾀하고 각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을 능가한다.
- (5) 이에 대해서 2세기말경의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에도 목회 서신을 '개인적인 애정으로 쓰여진 개인적인 편지'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존경과 교회의 규율을 정리해 놓은 점에 있어서 이 서신들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교부 터툴리안(Tertullian)도 '이 편지들은 교회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 (6) 물론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목회 서신이라 하더라도 그 효용성은 오늘날까지 계속된

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요소가 접목되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는 요즘음 목회 서신의 실천적 교훈들이 우리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9. ㉠ 목회 서신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 말하라.

- ㉠ (1) 먼저 구성에 있어서는 질서 정연한 면이 결여되어 있다. 즉 어떤 주제들은 특정한 이유도 없이 두 번씩이나 동일 서신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단편적인 교리가 개인에 대한 권고나 교회에 대한 충고와 뒤섞여서 나타난다.
- (2) 따라서 목회 서신은 형식을 갖춘 문학 작품이라기 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교리적이며 신앙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 (3) 한편 목회 서신의 문체는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로마서와 같이 잘 정돈된 구조나,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와 같은 엄격함은 찾아볼 수 없이 단조롭고 평범하며 또한 개인적 권면 등이 첨가된 관계로 그 분위기가 따뜻하다.
- (4) 그러나 이러한 단조로움과 산만한 주제들은 목회 서신이 추구하는 바 교회를 보호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 목회 서신에 나타난 이단 사상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들이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의 저변에는 교회 발전을 위협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그 이단들의 성격은 사변적(思辨的)이며 이지적(理知的)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절대시하며 교회 안에 헛된 변론을 야기시켰는데(1:4) 그것에 휩쓸린 자들의 가르침은 어리석은 말 싸움에 빠지게 하는(6:4) 것이었으며 진리와는 무관한 탁상 공론에 불과했다.
- (3)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교회 내의 거짓되고 교만한 지식인들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었으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편협한 지식만이 참다운 구원과 행복을 제공한다고 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6:4).
- (4) 그런 자들 가운데서는 '지은 말이나 족보'를 가지고 헛된 교훈이나 쓸모없는 논쟁을 하고(6:20), 현실적이지 못한 신화들을 지어 내었다(1:4, 14; 딤후3:9).
- (5) 한편 그들 가운데는 두 가지 대립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첫째는 금욕주의이다. 그들은 음식(식물)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만들었으며(4:4,5) 성(性)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결혼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참조, 딤후2:4).
- (6) 이에 반하여 또 다른 이단자들은 오히려 부도덕한 생활에 젖어 있었다. 그들은 성적(性的)으로 문란하여 연약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였으며 스스로를 쾌락에 내맡겼다(참조, 딤후3:3).
- (7) 또한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할례를 받은 자들도 있었다(딤후1:10).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1:7). 또한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명령을 좇도록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였다(딤후1:14)
- (8) 더우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부활은 단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산다는 영적인 의미로서의 부활(롬6:4)을 주장하여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고자 했던 전인격적인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였다(딤후2:18).

11. ㉠ 영지주의(Gnosticism)와 목회 서신에 나타난 이단 사상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라.

- ㉠ (1) 영지주의는 A. D. 1-3세기에 널리 퍼져 있던 일정한 종교 또는 철학 체계를 가리키는데

그 사상은 다음과 같다. 인류는 무지와 망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적 지식을 통하여 영적 해방에 도달한다는 사상이다.

- (2) 그런데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이원론(二元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물질이란 모두가 본질적으로 사악한 것이며 영(靈)만이 오직 선하다고 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그 같은 결과는 엄격한 금욕주의 내지는 무절제한 쾌락이라는 두 극단으로 나타났다.
- (3) 한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독교론을 가현설(假現說)이라 한다. 즉 물질(인간 육체를 포함)이란 선천적으로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부활의 실재(實在)까지도 부인해 버렸다.
- (4) 그런데 영지주의의 이 같은 사상은 목회 서신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극단의 이지주의(理知主義)와 지적인 교만 그리고 지어낸 우화와 족보, 금욕주의, 부도덕 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참고적으로 지나친 규율과 생의 법칙을 정해 놓은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영지주의의 금욕주의의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 (5) 이처럼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이단과 영지주의 사상의 유사점은 비평가들로 하여금 목회 서신이 영지주의가 유행하던 2세기에 쓰여졌다는 근거를 갖게 하였다.
- (6) 그러나 영지주의의 기본 사상은 바울의 시대에 이미 교회를 둘러싼 분위기 속에 현존하고 있었으며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목회 서신이 2세기에 쓰여졌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 (7) 영지주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본 시리즈 공동 서신 서론 ㉔ 5-8을 참조하라.

12. ㉔ 목회 서신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㉔ (1) 첫째, 교회 행정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 서신들은 우리에게 공중 예배에 관한 지침과 교회의 직분, 교회의 역할, 목회 상담 등과 같은 교회 행정과 지도자의 자질 및 역할에 대해 가르쳐 준다.
- (2) 둘째, 기독교 정통 신앙에 위배되는 이단들에 대해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이단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 (3) 셋째, 성별된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생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악한 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 (4) 넷째, 신조(信條)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단 사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올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조 곧 교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5) 다섯째, 목회 서신은 바울의 말년(末年) 활동상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즉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후의 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목회 서신을 통해 그 후로부터 바울이 처형되기까지의 행적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참조, 행28:30,31).
- (6) 여섯째, 목회 서신은 A.D. 1세기 후반의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3. ㉔ 바울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상호 관계성을 논하라.

- ㉔ (1)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방의 문물이 성행하던 곳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참조, 행19장) 약 3년간 자신의 온 정열을 쏟아부어 교회를 개척하였다.
- (2) 바울은 에베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에베소를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였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 내에서 디모데의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확보될 수 있었다.
- (3) 바울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부탁하였으며(참조, 3:14,15)

또한 그가 떠나 먼 곳에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참조, 엡1:1).

- (4) 한편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에베소 교회는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장로(참조, 3:1; 행20:17)와 집사들의 활동상이 돋보일 정도로 성숙한 단계에 오르게 되었다.
- (5) 더우기 교회 안에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형제(4:6), 성도(5:10), 신자(5:16)라 불렀으며 교회의 지도자(사도)를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 같다(2:8-12; 5:5).
- (6)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지닌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회가 부흥과 성숙함을 지니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신앙 인격을 지닌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14. **㉠**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이 서신의 수신자(受信者)는 디모데이다. 그의 이름(헬, 티모테오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2) 그런데 그의 성품은 소심하기는 하지만 온유하고 충성스러웠다(빌2:19-22; 딤후4:11). 이러한 디모데에 대해 바울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으며 그의 뛰어난 인품을 칭찬했다(딤후1:2; 4:9, 21).
- (3) 한편 그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행16:1에서인데 그 귀절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방 출신이다.
- (4) 그는 이교도 헬라인 아버지와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나(행16:1; 딤후1:5)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다(딤후3:15).
- (5) 이러한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전도 사업에 동참하라는 사도의 요청에 쾌히 응락하였다.
- (6) 한편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 기독교도들이 그의 권위를 의심할 것을 염려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권하였으며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는 폐쇄성이 짙은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다(행16:3).
- (7) 그런데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참여하였던 그는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이후 에베소에 와 있었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 바울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고 떠나는 길에 디모데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 교회를 목회하라는 부탁을 했다(1:3).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 교회를 건실하게 돌보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던 중 그는 바울로부터의 첫번째 편지(디모데전서)를 받았던 것이다.

15. **㉠** 디모데전서의 내용에 대해 서술하라.

- ㉠** (1) 인사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거룩한 체하는 에베소 교회 내의 이단자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바르게 지도할 것을 명령했다(1장).
- (2) 그리고 공중 예배에 관한 지침에 있어서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드러져야 하며, 공중 예배시 남자와 부인들은 단정하게 행하여야 함을 강조했다(2장).
- (3)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治理)하는 감독으로서의 자격과 그 일의 영광스러운 성격을 가르쳤다(3장).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 중 집사들과 여자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자격을 가르쳐 주었으며 집사들과 보조 집사들의 성실한 직무 수행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 (4) 그리고 바울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교자들의 성격과 그들의 위험성에 대해 증거하면서 이를 디모데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쳤다(4장).
- (5) 또한 바울은 특정 계층(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을 대하는 방법과,

- 과부와 장로의 가적 및 의무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는 디모데에게 지친의 주인라(9, 10)
 (6) 마지막으로 바울의 교훈을 아올러 교회 지도.

16. ㉠ 디모데전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바울의 인사와 서론/1:1-20
- ① 인사말/1:1,2
 - ② 거짓 교리에 대한 바울의 경고/1:3-7
 - ③ 율법의 목적/1:8-11
 - ④ 바울의 지난날/1:12, 13
 - 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바울의 증언/1:14-17
 - ⑥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1:18-20
- (2) 목회에 관한 여러 교훈/2:1-6:2
- ① 예배에 관한 교훈/2:1-15
 - ㄱ. 공중 기도의 중요성과 그 영역/2:1-8
 - ㄴ. 여자 교인의 지위와 그 품행/2:9-15
 - ② 교회 지도자에 관한 교훈/3:1-16
 - ㄱ. 감독/3:1-7
 - ㄴ. 집사/3:8-16
 - ③ 이단에 관한 교훈/4:1-16
 - ㄱ. 이단의 위험성/4:1-5
 - ㄴ. 이단에 대한 방어/4:6-16
 - ④ 훈계와 책임/5:1-6:2
 - ㄱ. 늙은이와 젊은이에 관하여/5:1,2
 - ㄴ. 과부에 관하여/5:3-16
 - ㄷ. 장로에 관하여/5:17-25
 - ㄹ. 종에 관하여/6:1,2
- (3) 결론과 인사/6:3-21
- 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6:3-5
 - ② 지족하는 마음/6:6-8
 - ③ 부의 위험/6:9,10
 - ④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명령/6:11-14
 - ⑤ 약속대로 오실 하나님/6:15, 16
 - ⑥ 부유한 자들에 대한 충고/6:17-19
 - ⑦ 디모데에 대한 마지막 훈계/6:20, 21

17. ㉠ 디모데전서의 중요 귀절은 무엇인가?

- ㉠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避)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6:11, 12).

제 1 장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경고와 권면

단락구분 1: 2 바울의 인사 / 3-7 이단을 경계하라 / 8-11 율법이 제정된 목적 / 12-17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다 / 18-20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دم 보다 도리어 번론을 내는 것이라

5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8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범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9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10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11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의 영광의 복음을 좃음이니라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횡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횡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당시 교회와 종교계 그리고 철학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와 아울러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자질을 가질 것을 명하였다(1-5절).
- (2) 특히 그는 교회 내의 이단자들 중 율법 교사가 되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율법의 바른 목적에 대해 교훈하였다(6-10절).
- (3) 또한 바울은 그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의 횡방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그 사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11-17절).

- (4)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입히신 이유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임을 밝혔다(16절). 이 사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 (5) 마지막으로 바울은 목회자가 지녀야 할 자질은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임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올바르게 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19절).
- (6) 본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바대로 양 무리들의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목회자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치더라도 낙심하여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참조, 3:9; 6:12).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한다.

2. **㉠**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말했다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의 사도직(使徒職)이 구주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命命)에 따른 직분임을 강조했다.
- (2)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자격을 밝힌 이유는 자신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내용의 권위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즉 자신이 지금 행하는 권면은 결코 자신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했다.
- (3)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 받은 자라는(참조, 고전15:8,9; 갈2:8)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데 이는 에베소에 있던 몇몇 교인들이 바울의 권위에 이의(異議)를 제기한 데 대해 자신의 공식적인 지위를 확신시켜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후1:1; 엡1:1; 골1:1).
- (4) 더우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은 그의 사도직이 자신의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밝혀 줌으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였다(참조, 고전7:6; 고후8:8; 딤후1:1).
- (5)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신앙과 지식 그리고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그 자격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인들과 불신자들에게서까지도 인정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참조, 창31:38-40; 33:13,14; 삼상17:34-36; 눅2:8-20; 15:3-6).

3. **㉠**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수식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 (1) 그는 하나님께 ‘구주’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다.
- (2) 여기서 ‘구주’(헬, 소테르)라는 용어는 이방 황제 숭배 집단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이는 특히 악명 높은 네로(Nero, A. D. 54-68) 황제에게도 적용된 말이었으나 바울은 ‘우리’라는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첨가하여 그것을 이방적인 용법과 대조시키려 하였다. 즉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을 위시한 모든 성도들의 주인이심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 (3) 또한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구원의 궁극적인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으며 이 단어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명칭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참조, 2:3; 4:10; 딤후1:3; 2:10; 3:4). 그러나 초기 바울 서신에서는 이 ‘구주’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다.

4. **㉠**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어떤 서식(書式)을 취하고 있는가? (1절)

- ㉠** (1) 헬라식 편지는 일반적으로 발송인의 이름 다음에 문안을 받는 수신인의 이름이 따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2)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형식에 있어서 헬라식 편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특별히 헬라식 편지가 주로 개인적인 것들이었는데 반해 신약의 서신들은 대체로 개

인에게 보다는 한 집단에게 보내졌다.

- (3)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쓴 기독교적 서신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순한 편지 형식 대신에 긴 설교를 수록함으로 수신자들의 나아갈 길을 밝혀 주는 교훈집 형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서사시 형식으로 확대된 하나의 종교적 관심과 가르침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헬라식 편지와는 차이가 있다.
- (4) 그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육체적 건강이나 행운 그리고 번영에 관심을 두었다기 보다는 수신자들의 영적 행복에 그 주안점을 두었다.
5. **㉠**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2절)
- ㉠** (1)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친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 (2) 그런데 선생과 제자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관습은 바울 당대(當代)에 널리 퍼져 있었다.
- (3)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개종(改宗)을 하였지만(참조, 행16:12) 그 개종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시 바울의 설교를 들은 루스드라 주민의 개종과 연관이 있음이 확실하다(참조, 딤후3:11).
- (4)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도중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른 후 그 여행에 따라 나서면서 바울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음이 분명하다(참조, 행16:3).
- (5) 따라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되었다'는 말의 뜻은 바울을 통한 디모데의 영적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 본서에 나타난 바울의 문안 인사 중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특이하게 사용된 용어는 어떤 것인가? (2절)
- ㉠** (1) 바울은 본서신에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관용구인 '은혜와 평강' 이외에 '궁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그런데 이 '궁휼'이란 말은 요이1:3과 유1:2 그리고 딤후1:2을 포함하여 네 서신에만 나타난다.
- (3) 원래 '궁휼'의 일반적인 의미는 불행한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의미는 인간의 제반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의 개념이면서 자유로이 화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감옥에서 죄수들을 석방하기도 하는 그러한 힘이다.
- (4) 따라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에게 보여 주시는 자애로운 행위 전체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한없는 선과 사랑 그리고 위로를 가리킨다.
- (5)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축원을 하고 있다.
- (6) 그러나 이 같은 '은혜와 궁휼과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의사에 의해 행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로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참조, 대상16:34; 시100:4; 요일4:9,10).
7. **㉠**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3, 4절)
- ㉠** (1)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神話)와 끝없는 족보(族譜)에 착념(着念)치 말게 하려 함이다.
- (2) 본절은 역사적으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된 후 새로운 여행 길에 들어섰을

때의 이야기이다.

- (3) 석방 후 바울은 디모데를 대동하고 그레데 섬을 지나 에베소에까지 왔으나 계속해서 동행하지 못하고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 둔 채 마게도냐로 떠났다(참조, 빌2:24).
- (4)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 함은 기독교 정통 교리 이외의 이단적 사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예 중 하나인 '신화(神話)는 당시에 도시나 명문(名門)의 기원을 어떤 신에게까지 소급시키던 풍조를 가리킨다. 즉 어떤 신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성을 세웠다느니, 어떤 집 여자와 혼인하여 한 가문을 세웠다'는 이야기 등이다.
- (5) 또한 '족보'는 명예를 귀하게 생각하던 옛 사람들이 중요시한 것인데 당시 사회는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신화와 족보에 집착해 있었다.
- (6) 그런데 이들로 인한 위험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첫째는 유대교 학자들이 의해 구약 인물들에 대한 훌륭한 상상적 족보를 만드는 것이었다.
- (7) 둘째는 영지주의의 위험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처음 비롯된 것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잃게 된 최하급 존재 단계까지의 족보와 전기를 만들었다.
- (8) 이와 같은 신화와 족보의 비슷한 형태를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인맥(人脈) 또는 계보(系譜)와 유사하다.

8. **㉠** 신화와 족보에 착념하는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절)

- ㉠** (1)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롬 보다 도리어 변론(辯論)을 가져온다.
- (2) 즉 구약의 인물에 대한 족보 만들기는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그노시스주의 자체가 추론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유식 계급을 자처하며 보통 신도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만하게 행동했다(6:20).
- (3)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 계보에 나름대로 단계를 정해 그것들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계단 곧 신과 인간 사이의 다리라고 했다.
- (4) 그것이 곧 바울이 말하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이다. 그들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는 하나님의 처음 유출자(流出者)이고, 천사들, 성자들, 사도들과 성도들이 2, 3, 4, 5급의 유출자들이라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 (5) 이러한 주장들은 끝없는 논쟁에 모두를 휘감아 버리고 끝내 하나님의 교회에 계급 의식과 분파주의를 조성하고 말았다.
- (6)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중보(仲保)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 뿐이다(2:5). 더 우기 하나님의 사랑은 만인을 위한 사랑이므로 자칭 유식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 뿐 아니라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은 임하게 된다(2:4;4:10).
- (7) 한편 본질에 언급된 '하나님의 경륜'이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 말도록 각자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가리킨다 (참조, 엡1:9).
- (8)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헛된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화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은 물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참조, 엡5:15;골2:6).

9. **㉠**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덕(德)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청결(淸潔)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 (2)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책임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권고의 목표는 사랑이다.
- (3) 그런데 사색적인 공리 공론(空理空論)만을 일삼던 그릇된 선생들은 이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주된 관심은 지적 만족을 얻는 데만 있었다.
- (4)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첫째, 청결한 마음이다. 구약적 의미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인간의 도덕과 감정의 총체를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결함이 없는 마음의 고귀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참조, 마5:8).

- (5) 둘째, 선한 양심(헬, 신에이데씨스)이란 정확한 자기 판단을 뜻한다. 올바른 자기 판단 작용은 성도가 지나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이와 비교해서 바울은 배교자들의 양심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디모테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4:2).
- (6)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굳건한 기초가 없는 단순히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의 거짓 없는 믿음이란 자신의 이익과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은 신실한 신앙을 가리킨다(참조, 행15:9).
- (7) 오늘날 교회 내에도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쓸데없는 신학 논쟁만을 일삼는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끝없는 논쟁도 결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 교리를 지어낼 소지(素地)가 있다(비교, 시24:3, 4).
- (8)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일보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0. ㉠ 이단들이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6, 7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논리를 펼쳐 율법(律法) 선생이 되려 하였다.
- (2) 그러나 그들은 5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필요 조건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표적 없이 방황하게 되었다. 즉 5절에 나타난 세 가지 덕을 갖추지 못한 신앙인은 신앙 생활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랑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무의미한 잡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3)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선생되기를 원했던 것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탐구욕에서가 아니라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혼합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공중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 (4) 즉 이들이 율법 선생이 되고자 했던 목적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교를 떠나 유대주의적 사고가 존재하는 집단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5)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복음의 진수(眞髓)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전통적인 권위 의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 생활하려 하지 않고 아직도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한 채 변화되지 못한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참조, 요3:3).
- (6) 그러므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헛된 말’을 남발하는 어리석음을 삼가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과 이웃에게 진정으로 유익되게 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공동체 안에서의 권위란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기 보다는 남들이 인정하고 세워 주는 것이다.

11. ㉠ 율법이 우리에게 선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8절)

- ㉠ (1)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법 있게 쓸 때이다. 즉 율법을 율법의 원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그 효용성이 발휘된다.
- (2) 유대교 율법의 굴레를 벗어난 초대 교인들은 기독교적 구속의 경험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였으나 율법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참조, 롬3:21,22).
- (3) 즉 그들은 ‘율법도 어떤 명확한 직능(職能)이 있으며 그 직능대로만 쓰면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 (4) 사실 율법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참조, 롬7:7).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의

로우며 선하다'(롬7:12)라고 말하였다. 이 율법은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 주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이다.

- (5) 이처럼 율법은 신앙 생활의 규범에 있어서 하나의 틀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율법 자체가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완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 롬3:20).
- (6) 한편 율법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의 원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듯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규범이나 삶의 원리든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피조 세계를 향하여 추구하고자 하셨던 원목적(原目的)에 맞게 지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평안을 안겨 줄 것이다.

12. **㉠** 율법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율법은 행악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선하고 의로운 자를 위하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 (2) 즉 세상 법에도 그러하듯이 법은 죄인들의 악행을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의인들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 (3)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이 필요치 않다.
- (4) 그러나 이 율법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용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제정해 두신 율법을 무시한다거나 또한 지나치게 절대시하여 날마다 율법 아래 있는 어리석음을 삼가해야 한다.

13. **㉠** 율법이 필요한 자들의 악행과 십계명(출 20:1-17)을 연관시켜 설명하라 (9, 10절).

- ㉠** (1) 먼저 십계명 전체와 관련된 것으로 율법의 개괄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 ① '불법하는 자': 율법의 주창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고(自高)하는 자 (참조, 롬2:12; 고전9:21; 살전5:14).
 - ② '복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요구에 적극 반대하여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참조, 딤후1:6,10; 벰전4:17).
- (2) 십계명 중 제 1,2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 ③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벰전4:18).
 - ④ '죄인': 하나님과 무관하여 날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참조, 고전6:9,10).
- (3) 십계명 중 제 3,4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 ⑤ '거룩하지 아니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고 그분의 뜻을 받들지 않는 자(참조, 벰전1:15,16).
 - ⑥ '망령된 자':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멸시하는 자(참조, 딤후2:16; 히10:29).
- (4) 십계명 중 제 5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 ⑦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로서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은 자(참조, 히12:8-10).
- (5) 십계명 중 제 6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 ⑧ '살인하는 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해 도전한 자(참조, 마5:21-26).
- (6) 십계명 중 제 7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 ⑨ '음행하는 자': 이성간의 불륜(不倫)을 행한 자(참조, 고전6:18).
 - ⑩ '남색하는 자': 동성간에 성 접촉을 일삼은 자(참조, 창19:1-11; 롬1:26, 27; 고전6:9).
- (7) 십계명 중 제 8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 ⑪ '사람을 탈취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형제의 권익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한 자 (참조, 출21:16).

(8) 십계명 중 제 9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⑫ '거짓말하는 자': 반드시 정죄받게 될 거짓 양심을 가진 자(참조, 계21:8;22:15).

⑬ '거짓 맹세하는 자':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일삼는 자(참조, 마5:33;약5:12).

(9) 다음은 십계명과는 무관한 듯이 보이나 십계명 전체를 요약, 또는 결론짓는 것으로서 이에 거역한 자를 가리킨다.

⑭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선(獨善)에 빠져 사는 자(참조, 딤후4:3; 딤펠1:9;2:1).

14. **㉠** '바른 교훈'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11절)

㉠ (1) 그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자신에게 맡겼음을 강조하였다.

(2) 여기서 '복되신'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축복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복의 근원임을 강조한 표현이다(참조, 신11:11).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다(참조, 히6:14).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는 저주와 형벌 아래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3)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란 영광스런 하나님에게서 전해진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

(4)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하는 교훈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에 근거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들(9, 10절)을 정확하게 고발할 수 있었다(참조, 갈1:6-10).

(5)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하며 부패한 영혼과 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6) 이처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권면이나 교훈의 말도 모두 복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더 우기 복음 전도자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전하여야 한다(고전2:2).

15. **㉠**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에 대한 찬양이다. 그가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는 비록 허물 많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자로 그를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이란 말은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빌4:13)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힌 말이다(참조, 고전15:10).

(4)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겼다'고 고백하였다. 이는 바울 자신이 보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된 자로 여겨 주셨다는 말이다.

(5) 그 뿐 아니라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귀절은 자신이 복음 전파자요 사도로서 봉직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뛰어난게서가 아니라 그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맡김을 나타내 준다.

(6) 우리가 목회자이든 교사이든 주를 위해 필요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것은 결코 나의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의지 때문이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고후9:8).

16. ㉠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인물이었음을 고백하였는가? (13절)

- ㉠ (1) 그는 과거에 궤방자, 꺾박자, 포행자(暴行者)이었음을 고백하였다.
- (2) 여기서 '궤방자'란 예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대하던 사실을 기억케 하며, '꺾박자'란 그리스도인들을 난폭하게 박해하던 자였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포행자'란 포악하고 무례한 자를 말한다(참조, 행9:1;22:19).
- (3) 즉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특별히 스테반 집사의 죽음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신앙과 그로 인해 빛어진 일련의 죄악들을 생각하였던 것이다(참조, 행7:58).
- (4) 그러나 그가 이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 일이 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5) 즉 그의 무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영적 어리석음이었다. 물론 이 영적 무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는 죄악이다(참조, 롬1: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도 결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궤방자', '꺾박자'며, '포행자'였던 것이다.
- (7)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긍휼이며, 그런 사실을 깨달은 자가 있다면 그는 그 같은 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참조, 골1:12;살전5:18).

17. ㉠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14절)

- ㉠ (1)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데 대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표현했다.
- (2) 그리스도를 궤방하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였다(참조, 신15:15).
- (3)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억하는 자만이 사죄(赦罪)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참조, 시68:19;119:62).

18. ㉠ 죄인 중에 죄수인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永生)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 (2) 15절에서 '미쁘다'라는 말의 의미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는 뜻이다.
- (3) 15절의 말씀은 인용문임이 분명하지만 어디서 인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그 문장은 격언처럼 리듬이 있고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
- (4) 특히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는 고백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죄가 많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참조, 사6:5).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부각된다(참조, 롬5:20).
- (6) 계속해서 그는 자신이 긍휼을 입게 될 정도로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훗날 당신을 믿게 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영생)'을 가르치시고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였다(참조, 요3:16).

- (7) 이같이 자신의 과거의 죄악된 삶과 현재의 변화된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과 연관시켜 살아가는 자만이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19. ㉠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찬미하였는가? (17절)

- ㉠ (1) ‘만세(萬歲)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이라고 찬양했다.
- (2) 신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서술하였다(마5:35; 계15:3). 그런데 본절에 나타난 ‘만세의 왕’이란 ‘영원히 왕으로 계시는 분’이란 의미를 갖는다.
- (3) 그리고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로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 없는’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분만이 우리의 영생의 보증이다(참조, 벰전1:4).
- (4) 더우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계신 영(靈)이시다(참조, 고후4:18). 또한 그분은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실체가 아니라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신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경배 대상이시다(참조, 요17:3; 엡4:6).
- (5) 이와 같은 바울의 찬미는 세상의 모든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존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초대 교회 당시의 예배 의식 용어이다.
- (6) 우리가 믿고 따르며 경배하는 분도 바로 이러한 절대자요 초월자이시며, 또한 유일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20. ㉠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명령은 무엇인가? (18, 19절)

- ㉠ (1) 그것은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指導)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다.
- (2) 5-17절에 걸쳐 본래의 문맥에서 잠시 벗어났던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3-5절) 주고자 했던 경계(警戒)를 본절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언급하고 있다.
- (3) 그런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란 디모데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바울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예언을 가리킨다(4:14).
- (4)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서 지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다.
- (5)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결코 일회적(一回的)이거나 일시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선한 싸움도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방심하지 말고 늘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6:12).

21. ㉠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디모데가 가져야 할 무기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 (2) 에베소서 6:10-17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데 반해, 본절에서는 교리와 행동에 관련된 근본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다.
- (3) 여기서 ‘믿음과 착한 양심’, 곧 ‘믿음과 도덕’은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갖고 있다.
- (4) 즉 양심이 일단 무시되기 시작하면 즉시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릇된 행동과 도덕적 부패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파멸을 가져오는 경우가 흔하다.
- (5) 그러므로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양심을 버림으로 일어나게 되는 파멸(파선)에 있었던 것이다.
- (6) 오늘날 종교로부터의 자유, 교리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도덕마저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방종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자유의 참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곧 모든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자유는 결코 방종이나 무절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참조, 갈5:13-15).

20. **㉠**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사단에게 내어 준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그것은 그들이 징계(懲戒)를 받아 회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 시대에 에베소 교회 내의 극단적인 이단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편 이 서신을 읽을 당시 모든 독자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참조, 행19:33; 딤후 4:14).
- (3)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이란 당시 교회 회중 가운데에서 출교시킨 사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범죄한 자들로 하여금 육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여러 불행을 당하게 함을 의미한다(참조, 롬2:6; 고전5:5).
- (4)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소란스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참조, 행 5:5-10).
- (5) 한편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엄히 징계한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하여 범죄한 두 영혼이 회개할까 하는 일말의 가능성과 또한 그들을 징계함으로 다른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욱 각성할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참조, 딤후2:25,26). 이처럼 징계는 한 인격을 파멸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자와 그를 바라보는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화보자료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 훈련. 아래는 노르웨이 남부 할링그달의 토르포 교회에 있는 13세기의 그림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세 사도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한다(18절).

제 2 장 교회 내에서의 기도와 규율

단락구분 1-4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감사 / 5-7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 / 8-15 교회 내에서 남녀가 지켜야 할 규율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맑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중용히 배우라
 12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중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피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 ㉠ 바울이 본장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한 교훈의 중요 내용은 무엇인가?

- ㉠ (1) 1-7절의 요지는 기독교 신앙의 보편 타당성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禱告)와 감사는 3-6절의 말씀에 근거를 둔 말이다.
- (2) 즉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위 고하(地位高下)와 출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3) 한편 8-15절까지에서 바울은 에베소의 여자 문제에 대해 거론하였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남자들만이 가르치도록 되어 있던(참조, 고전14:34) 전통을 깨고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여자들도 집회에서 말씀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 (4) 그러나 바울은 교회 내에서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금하면서 여자는 순종함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2. ㉠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번째로 권한 교훈은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禱告)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교훈이다.
- (2) 여기서 '간구' (헬, 데에세이스)란 긴박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기도' (헬, 프로슈카스)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도고' (헬, 엔투세이스)란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가리킨다. 또한 '감사' (헬,

유카리스티아스) 역시도 기도의 일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를 가리킨다.

- (3) 바울이 이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디모데에게 기도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한 교회를 목양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참조, 롬12:12;엡6:18;살전5:17).
- (4)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문귀가 있는데,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편협한 사고와 편견을 가진 관계를 지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보이려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 (5) 사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러한 기도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며, 반면에 이런 기도의 소리가 사라진 교회는 분명히 찢어지고 헐뜯는 분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성과 포괄성이 동시에 요구된다(참조, 눅18:1).

3. **㉠** 바울은 기도의 보편적 영역에 대해 어떠한 예를 들었는가? (2절)

- ㉠** (1) 그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地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端正)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生活)을 하기 위해서이다.
- (2) 이는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계층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기도 대상으로부터 제외(制外)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아닐 때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 (3) 지배 계급이 올바르게지 올바르게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진로와 사회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즉 정부와 사회가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으로써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생활을 안정된 상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 (5) 한편 여기서 '경건'이란 종교적 신앙심을 나타내 주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단정'은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품성과 도덕적인 덕행 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란 단순히 변화없고 적막한 생활이 아니라 참된 평화와 안녕이 지속되는 생활을 가리킨다.
- (6) 이와 같이 우리가 위정자(爲政者)들과 단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라든지 어떤 단체에 밀착되어 그들이 제공하는 이권과 기회를 얻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신앙적, 윤리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그래서 얻어지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이다.
- (7)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행동과 외침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또한 이웃의 안타까운 사정을 도고하여 끝내 자신과 그 이웃에게 평안과 고요가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는가? (3, 4절)

- ㉠** (1) 그것은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 (2) 이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선하며 이러한 기도가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러할 궁극적인 기도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단지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지만(참조, 약4:3)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이들의 영육의 강건과 평안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 (3)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흔쾌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참조, 요일5:14).
- (4) 한편 '진리를 아는 데'란 '구원을 받으며' 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진리'란 기독교 신앙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 (5)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 함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며, 지성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즉 진리는 설명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와 경험에 의한 지식을 말하며, 추상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이다.
- (6) 결국 '진리를 아는' 일은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를 수락하는 데서 달성되는 것이다(참조, 마7:24). 성도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각성을 가능케도 한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넓은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마5:43-48).

5. **Q** 5절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은 무엇인가?

- A** (1) 첫째는 하나님의 유일성이다. 바울이 유대주의와 기독교 사상이 공동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유일성 교리에 호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
- (2) 즉 전우주를 통괄하고 계시는 분이 곧 단 한 분이신 절대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구원과 은택을 받을 자가 단지 유대인들이나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 (3) 둘째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화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상이다.
- (4)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신 유일한 중보자(仲保者)가 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로 인해 멀어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셨던 것이다(참조, 히9:15; 12:24).
- (5) 세째로 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다. 즉 바울은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였다.
- (6) 이것은 신성(神性)과 더불어 인성(人性)도 가지신, 즉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 (7)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 사이에는 어떤 만날 만한 가능성과 접촉점도 없었다. 만약에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을 잇고 하나님과 인간을 동시에 이해하시는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이다.
- (8) 결국 본질의 말씀은 '한 하나님, 한 중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도 되시며 사람도 되시고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분이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임금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한 그 명령(2절)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 (9) 이 같은 바울의 사상은 곧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다(신6:4; 요14:6; 갈4:4). 그런데 바울이 본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속성 자체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요13:1; 요일4:16).
- (10)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도 나타내야 한다(참조, 마5:43-48).

6. ㉠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6절)

- ㉠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그때에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제시되고 확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 곧 '기약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그 효력을 적용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개개인의 중생시, 거룩하게 되는 때 등에 계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께서는 최후의 구속을 위해 완전한 증거와 보증인이 되실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갈4:4;엡1:10;히1:2).
- (3) 한편 본절에서 말하는 '속전'(헬, 안틸루트론)이란 부채 또는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자에게 자유를 제공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와 회생을 가리킨다.
- (4) 예수께서는 분명히 죄의 노예로 전락하여 날마다 고통과 신음 중에 있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속전'이 되어 주셨다. 그 결과 당신을 의뢰하고 그 '속전'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허락하셨다(참조, 막10:45).
- (5)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사역(事役)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참조, 마28:19,20).

7. ㉠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 했는가? (7절)

- ㉠ (1)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을 뿐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증거하였다.
- (2)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언제나 권위 있고 중대하며 존경할 만한 공중 선언서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즉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을 입었던 것이다.
- (3)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도 세움을 입었음을 진술하였다. 그는 비록 예수의 12제자 중에 끼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다른 사도들보다 더 활동적이고 깊이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다(참조, 고전15:10).
- (4) 더우기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믿음과 진리'로 교육받고 그 교육받은 것들을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다(참조, 딤후1:11).
- (5) 그런데 그가 이러한 사실들을 디모데에게 강조한 이유는 그 사실을 디모데에게 확증시켜 준다기 보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실히 하여 아무도 자신과 디모데의 권위를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 (6)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자신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그는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에 부름 받은 그 영광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은 바 직분들을 열거했던 것이다.

8. ㉠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남자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내용은 무엇인가? (8절)

- ㉠ (1) 바울은 그곳 남자들이 각처(各處)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소원하였다.
- (2) 여기서 '각처'란 '모든 교회'를 말하며 '거룩한'이란 말은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손을 가진 경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에서 나왔음이 분명하다(참조, 마5:23,24;6:14).
- (3) 그런데 당시 행해진 기도의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펴는 것(참조, 눅18:11)과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리고 땅 위에 완전히 엎드린 채 진행되는 기도 등이 있었다.
- (4) 그리고 '거룩한 손'이란 손을 씻던 의식에서 비롯된 말로서 전혀 흠이 없고 시비와 다툼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

하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형제들과 화목할 때에만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참조, 마6:14).

- (5) 예수께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5:23,24)고 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분냄과 혈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타인을 해치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동과 생각과 기도를 삼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 수 있다(참조, 마5:8).

9. **㉠**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의 바른 몸가짐은 어떤 것인가? (9, 10절)

- ㉠** (1) 그들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廉恥)와 정절(貞節)로 자신을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행해야 한다.
- (2) 바울 당시에 여자들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인 화려함에 더 치중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머리를 손질한다든지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 (3) 이와 같이 화려하고 사치한 것들에 눈이 어두워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고 권면하였다.
- (4) 여기서 '아담한 옷'이란 적절하고 분수에 맞는 옷, 그렇다고 너무 초라하지 않은 수수한 옷을 가리킨다. 그리고 '염치'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 앞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리키며, '정절'이란 모든 불순한 욕정과 욕심을 버리고 항상 깨끗하고 순수함을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행'이란 그리스도인 여인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장식품으로서 공동체 전체를 유쾌하게 하며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의미한다.
- (5) 사실 여인의 생명은 아름다움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단지 외적인 화려함만이라면 그것처럼 무가치하고 바보스러운 일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활하는 여인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외모 이상으로 자신의 내면(영적, 도덕적)을 치장하고 가꾸는 일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참조, 잠31:10-31).

10. **㉠**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중 여자들에게 금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從容)히 배워야 하며 여자에게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 (2) 바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속한 도시들에는 여자들의 지위가 상당히 보장되었고 또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 같다. 그 결과 교회 안으로 이런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여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었다(참조, 행16:13-15).
- (3) 이 같은 자유는 온 공동체(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보다 오히려 분란과 다툼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편지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수건을 씌우므로써 표시하라고 당부했다(참조, 고전11:2-16).

- (5) 이처럼 여자의 행동 반경과 권위를 제한시키고 남자에게 복속시킨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를 속박하고 천시하는 남존 여비(男尊女卑) 사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생각된다.
- (6)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남자의 권위를 절대시한다거나 여자는 인격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13절)를 재천명한 것이고 각각의 기능의 차이를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그 당시 여자들은 공적인 모임에서는 일절 조용해야 했으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자로서 활동했다(참조, 딤후3:14).
- (7) 이처럼 자신의 위치와 삶의 스타일을 성경을 통해 바로 이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실행해 간다면 별 다름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 공동체 안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엄청나게 많이 있다.
- (8)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여자의 활동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실행해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굴종(屈從)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1. **㉠**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그것은 이와보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으며 여자가 피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선재성(先在性)을 강조한 말이다(창2:18-25). 물론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 (3) 한편 남자는 뱀의 유혹을 받지 않았으나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 인류 모두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사실(참조, 창3:1-6)은 여자에게는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피임을 받는다는 주장을 낳았다.
- (4) 즉 여자가 남자를 가르친 이 한 번의 실수는 인류 전체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하며 남자를 가르치는 권리는 빼앗겨야 한다는 의미이다.
- (5) 여기서 '하와'라 하지 않고 '이와'라고 한 것은 히브리어로 생명을 뜻하는 '하와'라는 말을 단지 헬라어화한 것뿐이다.
- (6) 여하튼 하와가 한 일은 모든 여자들이 준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영원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의식적(儀式的)인 일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 (7) 그런데 이런 논리를 극단적으로 적용시켜 여자를 하나의 노예나 물건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한 인격체요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독립체이다. 서로의 위치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남자와 여자 간의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인생에 있어서 동역자요 서로의 보완자라고 할 수 있다.
12. **㉠**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5절)
- ㉠** (1) 만일 여자들이 정절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 (2) 여기서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귀절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여자는 어린아이를 해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
- (3) 즉 여자는 자신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지워진 형벌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남자와 동일하리라는 의미이다.
- (4) 뿐만 아니라 여자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자녀와 가정을 돌보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반면,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피해야 한다.

- (5) 이처럼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유지하는 것은 여자로 하여금 결코 남자에게 뒤지지 않는 신분임과 동시에 하나의 독특한 생활 영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 (6)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 기른 이도 여자이며, 십자가 옆에서 예수와 끝까지 함께 한 이들도 여자였다. 또한 브리스길라는 초대 교회의 귀한 선생으로 남편과 함께 아볼로를 진리로 인도하기도 했다(행18:26).
- (7) 그러므로 여자는 결코 노예와 같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개발할 수 있는 독특한 영역들을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량과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한다.

화보자료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 터어키 여인이 입고 있는 의상은 민속 의상에 가까운 것으로서 주로 금으로 장식된 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옷이 날개'란 말이 있다. 이는 옷차림에 따라 사람의 외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사람이 외모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가꾸지 못할 때가 많다. 이는 특히 여자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장에서 여성도들에게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땡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9, 10절)고 권고하였다.

제 3 장 교회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단락구분 1-7 감독의 자격을 규정하다 / 8-10 집사의 자격을 규정하다 / 11-13 직분 맡은 자와 그 아내 그리고 그 가정이 보여야 할 모범 / 14-15 본서신의 기록 목적 / 16 경건의 큰 비밀을 가르치다

1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북중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음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14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1. ㉠ 본서 가운데서 특별히 본장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바울은 속히 에베소로 달려가서 디모데를 만나 목회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 교훈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도착이 늦어지더라도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본장을 기록하였다(14, 15절).
- (2) 즉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그리고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교회가 되길 바라는 본서신을 기록하였다.
- (3) 이를 위해 바울은 본장을 빌어 교회의 감독과 집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제규정을 정하였다. 바울이 정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규정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켜져야만 하는 교회 정치 제도의 바른 규범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이 오늘날 각 교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 (4)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에 직면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맡은 직분에 얼마나 충실하며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 (5)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임명할 때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선출해야 한다(1-13절).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진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2. **Q** '미쁘다 이 말이여'란 귀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1절)

- A** (1)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만하다' (1:15) 혹은 '전적으로 확실하다'라는 뜻이다.
- (2) 한편 학자들간에는 이 문귀가 2:15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독의 직무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첨부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3) 즉 사도 바울은 전장(2장)의 내용을 마감짓고 그보다는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이 귀절을 기록한 것 같다.

3. **Q**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감독은 어떤 직책이었는가? (1절)

- A** (1) 감독(헬, 에피스코포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직책으로 구약의 '간역자'를 헬라어화한 단어이다(대하34:17).
- (2) 또한 헬라에서는 시위원을, 로마에서는 시정 감독관이나 국정 감찰관을 '감독'이라 했는데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무슨 일을 감독 처리하는 자라는 뜻이며, 둘째는 자기를 임명한 상관에게 책임을 지는 자라는 뜻이다.
- (3) 그런데 초대 교회 내에서 '감독'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교회의 생활과 사업을 감찰하는 직능과 더불어 교인들의 신앙 생활 전반을 보살피 주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 (4) 즉 초대 교회 내에서의 감독은 권위를 내세우고 백성을 지배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를 받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봉사자였다.
- (5) 한편 이 감독직은 교회 직제가 발달하면서 연로하고 경험이 있는 교회 지도자를 가리키는 장로(헬, 프레스부테로스)직과 구분이 되었지만 교회 초창기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행14:23;20:17,28;벧전5:1,2).
- (6)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 내에서 장로는 하나의 공식적인 직함인데 반하여 감독은 장로가 수행해 가야 할 일의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두 직책간에는 별 구분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 내에 행정적인 제도가 복잡해지고 각 직제의 기능이 전문화되어 가면서 감독은 장로와는 구별된 독립적 기능을 소유한 직임이 되었다. 이때부터 감독은 봉사적 기능보다는 교회 행정과 교육의 수반으로서 지도자적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감독은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교인을 돌보아 주는 원래적인 의미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가장 높은 어른 또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4. **Q**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떤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가? (1절)

- A** (1) 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만 한다.
- (2) 여기서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 보다는 온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들을 통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그것은 2절 이하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3) 한편 바울이 본절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감독의 직능이 비록 행정적이며, 의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각 성도를 돌보며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 마련된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형제를 돌보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은 정말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다.
- (4) 특별히 바울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을 첨가하여 감독이라는 직책이 세상적인 명예와는 구별된 거룩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과 긴밀히 연관된 직책임을 강조하였다(참조, 고전12:31;14:1).
- (5) 그런데 당시의 상황에서 자원하여 교회의 감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회생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협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더우기 거짓 선생들은 복음의 참된 기초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다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교회를 돌보는 일을 맡는 데는 반드시 완전한 헌신과 회생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 (6) 따라서 본질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맡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칭찬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7)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회자의 길이 예전과 같이 큰 핍박은 없을지라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더불어 자기 극기(克己)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길이다 (참조, 고후11:22-27).
- (8)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보다 더 고귀하고 보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목회자의 비리와 인품을 나무라기에 앞서 그들이 맡은 직분의 귀중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 감독의 성품은 어떠해야 하는가? (2절)

- ㉠ (1) 감독(監督)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節制)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待接)하여야 한다.
- (2)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그 일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독’은 덕행의 전형이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비행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참조, 딤펠1:6).
- (3)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축첩(畜妾), 일부 다처(一夫多妻), 혼외 정사, 사별 후의 재혼 등의 금지를 의미한다.
- (4) 이것은 감독이 지녀야 할 행동 규범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감독의 성품이 어떠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감독은 호색(好色)하는 방탕한 기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신의 가정을 진실히 가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성품의 소유자여야 한다. 한편 여기서 재혼까지 금지한 것은 지나친 것 같으나 감독된 자가 여러 여자의 자녀들을 거느리므로 해서 가정이 시끄러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본질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감독은 한 아내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조, 히13:4).
- (5) 그리고 ‘절제’, ‘근신’, ‘아담함’은 모두 일정한 관계를 가진 성품들로 질서 있는 생활 태도를 묘사해 주는 말들이다.
- (6) 특히 ‘절제’라는 의미 속에는 ‘술을 즐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진지한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참조, 딤펠1:8;2:2). ‘근신’은 ‘건전한 생각’, ‘신중’ 등을 의미한다. 사실 감독이 성급한 기질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인격을 함부로 다룬다면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참조, 딤펠2:5). 그리고 ‘아담함’은 ‘외적 생활이 단정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행위와 모습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외적인 태도에서조차도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참조, 2:9)
- (7) 네째,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했다. 당시는 교통이나 숙박 시설이 매우 낙후하여 여행자들이 많은 곤욕을 치뤄야 했던 때라서 나그네를 대접함은 큰 호의(好意)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우기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도들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 당시 고아와 과부를 포함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었던 것이었다(참조, 롬12:13;벧전4:9).
- (8) 이처럼 한 교회의 지도자인 감독은 그 삶과 성품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수천, 수만이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교회 내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비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목회자는 무엇보다 순수하고 담백한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인간미를 상실한 목회자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6. **㉠** 감독의 능력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2, 4, 5절)

- ㉠** (1) 먼저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신자를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것을 말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자신의 양 떼를 말씀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일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참조, 마9:35).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목회는 분명 은사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 또한 감독은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도 그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며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 (3) 만약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잘못 양육된 자녀들이 가져오는 영향력은 다른 교인들의 자녀들에게 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감독의 무능까지도 드러내고 만다. 이것은 결국 목회자가 자기의 가정에 충실할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비교, 단11:37; 히13:4).
- (4) 그런데 5절에 괄호를 친 삽입구적인 질문은 어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흔히 사용했던 전형적인 바울의 문장 스타일이다(참조, 고전14:7, 9, 16).
- (5) 교회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큰 복이다. 말씀에 능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바로 이끌며 권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일이다. 이런 면에 목회자는 적어도 자기 가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
- (6) 오늘날과 같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온 교회와 사회 전체에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살아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7. **㉠** 감독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3절)

- ㉠** (1) 먼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한다. 즉 술을 통한 안위와 마음의 평정 또는 쾌락을 절대 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인간에게 미치는 술의 효용성에 관해 언급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참조, 5:23)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폐해를 더 강조하고 있다.
- (2) 술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의 지나친 자유를 허용하며 어떤 때는 인간을 '개'로 만들기도 한다. 한 교회의 영적, 윤리적 책임을 맡고 있는 자가 '개'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라고 해야 마땅하다. 만약 술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목회를 단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 (3) 두번째, 구타하지 말아야 한다. 기질이 난폭하여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가 목회 일선에서 활약한다면 그 교회는 폭력 집단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행동화된 폭력 뿐 아니라 언어로서의 폭력(暴言) 또는 성경과는 무관한 자기 주장의 절대화를 꾀하는 사상적 폭력까지도 포함한다. 어떤 목회자들 가정에 이따금 구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변명될 수 없는 잘못이다(참조, 딤후1:7).
- (4) 세번째, 관용해야 한다. 즉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어떤 손해나 아픔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남의 허물을 용납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을 때 온 교회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참조, 빌4:5; 딤후3:2; 약3:17).
- (5) 네번째,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관용의 정신과 통하는 말로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일을 삼가하고 타인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자세를 기리킨다.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끝내 한 공동체와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물론 진리에 대한 바른 입장을 확고히 지니고 있어야 하나 더 이상 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와 계속 쟁론을 펼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 (6)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되며 한 인간을 철저히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당한 부의 축적까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인간과 인간 간의 사랑 이상으로 돈을 중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돈에 의지하는 악행을 금하는 조치이다(참조, 6:10; 딤후 1:8).
- (7) 어떻게 보면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과 더불어 흠이 전혀 없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 때문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목회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주께서 맡겨 주신 사명에 대해 뜨거운 열의가 생긴다면 위에 제시한 여러 행동 규범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이다.

8. **㉠** 새로 입교(入教)한 자가 감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새로 입교한 자'(헬, 네오프토스)란 최근에 개심하여 세례받은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같은 자들이 너무 급격히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되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거나 그 신앙심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 (2) '교만하여지다'(헬, 튀포오)의 문자적 의미는 '연기에 싸이다'인데 이는 새로운 개종자가 갑자기 확보된 지위에 대하여 확실한 소명 의식이나 지휘 능력 없이 단순히 자만에 빠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같은 자만심은 결국 그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참조, 잠16:18).
- (3) 또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말은 마귀에게 예비된 정죄, 곧 자만심의 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참조, 롬16:20; 엡6:11; 약4:7; 벧후 2:4).
- (4) 따라서 초신자(初信者)가 짧은 신앙의 연륜(年輪)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자랑하여 자신과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는 신앙의 연륜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직을 맡기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 (5) 그러므로 교회의 어느 직분이나 모두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것들이지만 그것이 결코 나 자신의 뛰어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주어진 것이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항상 교회에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겸손한 신앙인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직분을 맡은 자는 '섬김의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전4:2). 동시에 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 내에 분란이 전혀 없도록 해야 한다.

9. **㉠** 감독이 될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7절)

- ㉠** (1) 감독은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걸려드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2) 사회가 교회에 대해 냉담했던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불필요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 (3) 사실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교회 내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면 사회적으로도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신앙인은 비록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지만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 자이기에 이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다.
- (4) 한편 '비방'과 '마귀의 울무'는 서로 연관된 표현으로 '마귀의 울무'가 곧 비방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즉 만약 도덕적 결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지도자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서 마귀의 간사한 술책에 교회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참조, 벰전2:12).

- (5) 교직을 목양하는 목회자는 단순히 교회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보루라는 입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 앞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인격과 삶을 갖추어야 한다.

10. ㉠ 초대 교회에서 집사는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8-13절)

- ㉠ (1) '집사'(헬, 디아코노스)란 원래 '종' 또는 '시종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초대 교회 안에 정착되면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 (2) 이들은 교회의 감독 및 장소들을 보좌하는 일을 주무로 하였고 특별히 교인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사실 집사가 교회 안에 자리잡게 된 것은 구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행6:1-6).
- (3) 그런데 이 직분은 초대 교회 내에서 제도화되기 전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되어졌다. 즉 공적인 면에서 집사의 직제를 가리켰고(참조, 빌1:1), 비공식적인 면에서는 봉사하는 자 모두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참조, 엡6:21). 여하튼 집사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온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직책임에 분명하다.
- (4) 오늘날에 있어서도 집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성실한 집사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그 교회는 참된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쉽게 집사 직분을 획득할 수 있는 요즈음 하나님에 기뻐할 만한 집사,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집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11. ㉠ 행위적인 측면에서 집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8절)

- ㉠ (1)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 이언(一口二言)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利)를 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집사에 관한 성경상 최초의 언급은 행6장에서 발견되는데 그곳에서 집사 임명의 목적은 주로 실무적인 것이었다(참조, 행6:4). 그런데 그들은 구제의 일을 담당하였기에 누구에도 흠잡힐 것 없는 도덕적인 높은 품성이 요구되었다.
- (3) 즉 집사들이 구제를 위해 각 가정을 다니야 하는데 만일 그들이 술을 즐긴다면 자신이 맡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당연히 말이 많아지고 험담과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할 것이다.
- (4) 또한 집사들이 구제를 위해 거둔 기금(基金)을 탐한다면 그 자신에게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5) 더우기 집사의 직분으로 말이 많음은 물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저 말을 하면서 일정하지 못한 나쁜 소문만을 퍼뜨리고 다닌다면 교회는 싸움판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 (6) 이와 같은 집사로서의 요건은 평신도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지만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집사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 (7)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음의 생활도 올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을 재력파 학식,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집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임명된 교직자들로 인해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며 또한 매사에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게 된다(참조, 렘50:6).
- (8) 거룩한 공회인 교회에 필요한 봉사자는 세상적인 조건이 만족하다고 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자라야 선택될 수 있다. 비록 교회 안에

일군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쪼들린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집사 직분을 맡기는 일은 삼가하여야 한다.

12. **㉠** 집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진 자라야 하는가? (9절)

- ㉠** (1) 그는 깨끗한 양심(良心)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2) 즉 집사는 실무적인 일을 위한 조건도 구비해야 되지만 영적인 확신과 정결함 또한 소유해야 한다.
 (3) 특히 그는 교회의 재정을 다루는 자로서 거짓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일을 하든지 불의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4)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산 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 양심적인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15:51).
 (5) 이처럼 교회의 봉사적 직분을 감당할 자는 종교적인 것 뿐 아니라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온전한 자라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신실한 믿음과 순결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아닌 부도덕하고 세사적인 인물이 교회의 살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13. **㉠** 집사의 선발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가? (10절)

- ㉠** (1) 먼저 후보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 좋다.
 (2) 그런데 이 시험(試驗)은 주제와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성과 구원의 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교회 전체의 관찰이라 할 수 있다.
 (3) 그리하여 그 후보자들이 비방받을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자라고 판단된 후 그들을 집사로 임명해야 한다(참조, 행6:3-6).
 (4) 이와 같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집사의 임명은 서두르거나 무조건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거룩한 직분이라는 점에서 엄정성(嚴正性)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만 집사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 직책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요15:16).

14. **㉠** 여집사들의 자격 요건은 남자 집사들과 어떻게 차이지는가? (11절)

- ㉠** (1) 단정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여집사로 합당하다는 데는 남집사의 자격 요건과 다름이 없으나 여집사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참소하지 않는’ 요건이 추가된다.
 (2) 여기서 ‘참소하다’는 말은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곧 사단적인 행위로서 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며 마침내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참조, 계12:10).
 (3) 이 조항은 남자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여자들에게 해당된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활동 범위가 좁은 여자들은 밖에서 활동하는 남자들보다 이야기 거리가 적은 대신 개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중상과 이웃에게 명예 훼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만약 집사로 피택된 자가 형제를 구제하는 중에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여기 저기 옮기고 다닌다면 큰 말썽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더우기 남을 고자질한다거나 신의를 떨어뜨리는 번잡스러운 말은 교회 전체에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거룩한 일을 위해 모인 교회에서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은 물론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들이나 평신도들까지도 서로 말을 조심해서 하며 부지중(不知中)에라도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의 약점에 관한 이야기를 옮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참조, 시101:5; 잠10:18).

(6) 말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운 사건이 많아지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사업은 줄어들게 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말에 쏟는 힘을 모아 두었다가 거룩한 주의 사업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Q** 집사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13절)

- A** (1)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膽力)을 얻게 된다.
 (2) 여기서 '지위'란 문자적으로 '터', '기초', '계단'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얻는다는 말은 자신의 말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신앙의 발전도 꾀하게 될 것임을 가리킨다.
 (3) 더우기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보다 나은 봉사를 위한 담대함을 얻게 되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참조, 요일4:17).
 (4) 이처럼 직분은 우리들에게 많은 금지 사항과 힘에 겨운 봉사를 요구하지만 그에 따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수행해 나갈 능력까지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만을 의지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참조, 히4:16).

16. **Q**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서신을 써서 준 목적은 무엇인가? (14, 15절)

- A** (1)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로 속히 가기 원하지만 여행이 지체될 것에 대비해서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을 주기 위함이다.
 (2) 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선정하여 목양하도록 했었다.
 (3) 그런데 본장에 기록된 지침들을 디모데가 모르고 있었을 리 없지만 바울은 자신의 지침을 확고히 해두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4:12).
 (4)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며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 힘쓰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침들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4:13-16).

17. **Q**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칭했는가? (15절)

- A** (1)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다.
 (2) 교회는 하나님의 '집'(헬, 오이코스)이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 교회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 되지 못하면 그곳은 참교회가 아니다(참조, 고전6:5; 요일3:10-17).
 (3) 또한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다. 여기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모으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초청)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다(참조, 마18:17).
 (4) 더우기 이 교회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다(참조, 4:10; 마16:16). 그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거하던 에베소 지방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마 바울은 그 아데미가 살아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죽은 것)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언급을 한 것 같다.
 (5) 교회는 '진리'의 '기둥'(헬, 스톨로스)이다. 여기서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참조, 요 17:17)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참조, 요1:14,15; 14:6)를 가리킨다.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으며 항상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

- (6) 한편 고대의 건축물에 있어서 기둥은 건물의 지탱보다는 아름다운 장식의 목적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진리의 기둥'이란 교회의 책임이 사람들이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도록 진리를 높이 드는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세주 예수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진리의 기관이어야 한다.
- (7) 교회는 진리의 '터'이다. 즉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기관이다(참조, 딤후2:19). 만약 교회가 흔들리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는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 (8) 이처럼 교회는 불의와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영적 진리의 수호자 노릇을 해야 하며 그 진리를 계속 지탱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모든 인격과 양심에 참 진리의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는 인간적인 단체에 불과할 것이다(참조, 마 12:50; 25:40).

18. ㉠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찬양했는가? (16절)

- ㉠ (1)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라고 표현하였다.
- (2) 실제로 본귀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엇이 신비하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놀라움을 찬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3) 여기서 '비밀'이란 '제시된 진리'를 가리키며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의미한다(9절). 그러므로 이 귀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진리의 놀라움을 찬송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의 비밀인 것이다.
- (4) 한편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란 말은 이 같은 비밀이 언제 어디서나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진리이다'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자인한다' 혹은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형식의 찬양은 보통 초대 교회 당시 기원과 신앙 고백에서 사용되었다.
- (5)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 진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알지 못한다. 그러기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주의 기이한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그 비밀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사9:2; 호 2:23; 엡3:6).

19. ㉠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16절)

- ㉠ (1)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萬國)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고 했다.
- (2) 이는 초대 교회에서 하던 찬미의 일부분으로서 풍부한 운율과 의식적(儀式的)인 요소를 결들인 6행으로 된 한 편의 시이다.
- (3) 첫 행은 예수의 참인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성품과 모습 속에 나타난 신의 현현(顯現, 6:14; 딤후1:10; 4:1, 8)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다(참조, 요일4:2).
- (4) 둘째 행('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은 비록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그분께는 죄가 없었고 오히려 성령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확증을 얻었음을 보여 준다(참조, 눅4:1-14).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던 것이다(참조, 롬3:21-26).
- (5) 셋째 행('천사들에게 보이시고')은 하늘의 존재들조차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를 사모하였기에 예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의미이다(눅2:12-14; 막

- 1:13; 벰전1:12; 히1:6). 이 같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의 주인이심을 밝히는 것이다.
- (6) 네째 ('만국에 전파되시고')와 다섯째('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광범위하게 전파될 것과 그 전파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말해 준다. 이는 예수께서는 결코 유대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세상에 오신 메시야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되심을 나타낸다(참조, 엡3:6,8).
- (7) 마지막 행('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언급으로 예수의 생애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귀결됨을 가리킨다(참조, 마25:31).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는 분명 우리 믿는 자들의 찬송이시며,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참조, 마16:27; 빌2:11).
- (8) 그런데 이 찬송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에베소의 이방 신인 아데미와 대비시켜 표현한 것이다. 즉 당시의 황제 숭배나 아데미 경배시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였는데 바울의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그에 대비시킨 것이다.
- (9) 어쨌든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생활 전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시107편). 진리의 근본이시며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다(참조, 마16:16).

연구자료

원어로 살펴본 집사의 제 기능. '집사'(deacon)라는 명칭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의 본래 의미는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수행원', '종', '일꾼', '시중꾼' 등이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디아코노스>는 집사 외의 다른 직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이거나 집사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을 이해하도록 하자.

① 청지기 :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눅12:42; 16:1; 딤후1:7; 벰전4:8, 10 등에서는 '청지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집사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교회의 재정을 맡아 착복하는 일이 없이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하인 : 요2:5, 9에서는 이 단어가 '하인'을 가리키고 있으나 집사는 언제든지 교회가 시키는 일을 기꺼이 도맡아 수행하여야 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섬기는 자 : 고전16:15에서는 이 단어가 '섬기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사람을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듯이(마20:28) 집사는 교회를 받들며 봉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일꾼 : 롬16:1; 엡3:7에서와 같이 이 단어는 일꾼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집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제 4 장 올바른 목회를 위한 지침

단락구분 1-2 배교가 있을 것을 경고하다 / 3-5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을 능가한다 / 6-11 형제들 깨우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 12-13 네 본분을 다하라 / 14-16 너의 진보를 보이라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둘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1. ㉠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

- ㉠ (1) 전장(3장)에서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을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본장에서 그러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디모데 개인에게 대한 권면을 통해 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는 먼저 마지막 날에 배교(背教)가 일어나며 뒤이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을 것을 경고했다(벤후2:1).
- (2)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혼인과 식물을 금하는 등의 금욕주의에 깊이 몰들어 있었다(계14:4).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경륜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다(4절).
- (3) 한편 바울은 배교와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던 그 당시에 과연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명하였다. 또한 그 명령 가운데서 복음 사역자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10절).
- (4) 마지막으로 그는 배교의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힘써야 할 디모데 자신이 스스로의 진보를 위해 계속 정진(精進)하며, 말씀 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하였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거짓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항상 양 떼들에게 바른 영의 양식을 먹임으로써 자신의 양 떼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겔33:6).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해서 목회자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스스로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2. **Q**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전한 예언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1절)

- A** (1) 그 모든 예언들은 후일에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후일'이란 묵시 문학적으로는 '말세' (막13:5, 6, 22, 23; 딤후3:1)를 말하지만 바울은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도 암시하고 있다(참조, 벡후2:1).
- (2)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항상 영적인 긴장을 할 수 있었으며 비록 사단의 활동이 극심해지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악한 세력의 활동을 예지(豫知)할 수는 있었던 것이다(참조, 행20:23; 골2:8,16).
- (3) 이와 같이 날마다의 삶에서 영적인 긴장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후일'에 있을 사단의 활동을 대비하여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악의 울무에 빠지거나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이 풍요하고 안락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나태하여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깨어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참조, 벡전5:8-10).

3. **Q** 사람이 거짓 교훈에 이끌리게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A** (1) 그것은 한 개인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 (2) 즉 사람이 거짓 교훈을 믿게 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다(참조, 1:19). 사실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인간의 자의적인 행동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다(참조, 창3:6).
- (3) 이처럼 한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곧바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게 된다. 여기서 미혹케 하는 영이란 진리의 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단을 의미한다(참조, 마24:15; 요일4:6; 계16:14). 계속해서 귀신의 가르침이란 사단의 부하적인 악한 세력들의 그릇된 교훈을 가리킨다(참조, 고후4:4; 계13:11,14).
- (4) 이렇게 사단에게서 전해지는 그릇된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거짓과 파괴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참조, 약3:15) 그것을 따르는 인격에게 혼란과 불의를 제공한다.
- (5) 한편 그 거짓 교훈은 항상 진리로 위장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참조, 고후11:14) 성도들이 말씀에 입각하여 자기에게 전해진 교훈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사단의 울무에 빠지고 말 것이다(참조, 요일4:1).
- (6) 그러므로 한 인격을 파탄으로 내몰고 사단의 울무에 빠지게 하는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항상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고후13:5). 더우기 신앙 세계는 중간 지대가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달아 항상 진리를 좇아 생활하는 신실함을 지녀야 할 것이다.

4. **Q** 바울은 믿음에서 떠나 버린 자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2절)

- A** (1)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양심이 화인(火印)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라고 했다.
- (2) 여기서 '화인 맞다'는 말은 원래 노예 매매가 활발했던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서 그 당시 노예는 이마와 같은 신체 부위를 불로 지져서 주인의 소유로 표시되었다. 물론 그 지진 부위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감각이 없어지고 딱딱해진다.
- (3) 그러므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한 개인의 양심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자기 행동이 그릇됨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졌다는 의미이다(참조, 엡4:19).

- (4) 그 결과 그들은 철저히 위선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참조, 마7:15; 딤후1:16) 거짓말을 일삼아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떠나게 했다(참조, 창3:1-5).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버린 인격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여 항상 불의와 부패를 조성하며 그 이웃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참조, 민22:12, 19, 21, 22; 마24:24; 벰후2:15). 교회는 이 같은 자들의 활동을 저지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전체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숙한 신앙인에게 사단은 그 힘을 잃고 만다.

5. ㉠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교훈은 무엇인가? (3절)

- ㉠ (1)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食物)을 폐(廢)하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는 무관한 금욕주의의 전형으로서 바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영지주의자(靈知主義者)들의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육체)은 악하다는 명제를 신봉하며 그러한 기준에 따라 삶의 규범을 만들어 갔다.
- (3) 따라서 그들은 육체 뿐 아니라 육체의 본능과 신체의 모든 기능마저도 악하기 때문에 천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육체적인 나음을 이루는 결혼을 정죄하고 결혼의 무용론(無用論)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육체의 무가치성을 주장하여 육체를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하였다. 즉 남녀의 성적 방종을 조장하기도 하였다.
- (4) 또한 그들은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규제 조항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한다거나(참조, 골2:16, 23) 이방 신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참조, 고전8:7) 등이다.
-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 좋게', ' 선하게' 창조하셨다(참조, 창1:10, 12, 18, 21, 25, 3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참조, 막7:15; 롬14:14; 딤후1:15).
- (6)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기회와 물질들을 '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참조, 롬1:21). 그런 점에서 바울은 '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 (7)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의 무가치성이나 음식물의 제한 규정 등의 그릇된 교훈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합치된 삶(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한다(참조, 행10:10-15).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한 삶은 인간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다.

6. ㉠ 혼인과 음식의 금지 규정을 강조하는 금욕주의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반박하였는가? (4절)

- ㉠ (1) 그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 (2) 이 같은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창조한 모든 세계도 선하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창1:29, 31; 9:3).
- (3) 어떤 면에서 바울은 본질을 빌어 유대인들의 음식에 대해 나름대로 구별하는 관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레위기 율법에 나타난 ' 정결한 동· 식물'과 ' 부정한 동· 식물'의 구별 자체를 거부하면서 '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가르쳤던 것이다(3절).
-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금해야 할 음식이란 있을 수 없다. 사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잘못될 경향성이

있을 뿐이다(참조, 마15:11-20).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어떠한 금기(禁忌)를 두기 보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5) 더우기 삶을 부정한다든지 삶에 대하여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혜롭고 절제하는 삶을 삶으로써 과욕(過慾)으로 인한 타락을 막아야 한다(참조, 고전6:12).

7. **㉠** '선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기록해지는가? (5절)

㉠ (1)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기록해진다.

(2)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식사하기 전에 갖는 기도회에서 낭독한 성경 귀절을 의미한다기도 하고 기도 중에 인용하는 성경 귀절을 가리킨다기도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취할 수 있는 해석들이다.

(3) 한편 '식물'은 그 자체가 거룩한 성질을 지니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식물'은 무인격체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할 만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구약 시대 성전에 있던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던 사실과 통한다(참조, 왕상9:3). 결국 기록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4) 그러므로 기록하지도 그렇다고 더럽지도 않은 식물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게 되면 그 '식물'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참조, 딤후2:21).

(5) 특별히 그렇게 거룩하여진 음식을 먹고 활동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거룩성은 더욱 돋보이게 된다.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평범한 삶이 하나님과 항상 연관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참조, 고전10:31).

8. **㉠**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는가? (6절)

㉠ (1) 만약 디모데가 15절까지의 교훈들로 자신이 목양하는 형제(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었다)를 깨우치면 마침내 그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그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일군'(헬, 디아코노스)이란 단어는 3:8, 12에서 '집사'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는데 본절에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청지기 또는 종을 묘사한 것이다. 물론 이 '일군'이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하며 진리를 바로 세우고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과 형제를 일깨우는 것 등이다.

(3) 또한 '믿음의 말씀'은 참된 진리인 복음을 가리키고 '그가 좇은 선한 교훈'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실천해 온 성경적인 교훈들을 가리킨다(참조, 딤후1:5;3:14,15). 한편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을 통하여 양육받을 것을 권면하였다.

(4)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한 일군'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형제들을 진리로 깨우쳐야 할 뿐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

(5)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남을 향해서는 많은 교훈을 전하고 권면하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9. **㉠**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요약하라(6-8절).

㉠ (1) '지도자는 먼저 사람들을 깨우쳐야 한다.' 그런데 '깨우치면'(헬, 후포디테스다이)이란 말(6절)의 원뜻은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보다는 '충고', '권고', '제의'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러므로 지혜로운 지도자는 강압적으로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기 보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시키고,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훈을 제시하여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권위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

- (3) 둘째 '지도자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도자가 무엇을 가르치려면 먼저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대상들과 함께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교만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다(참조, 잠16:18).
- (4) 셋째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말씀 그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도자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모범삼아(참조, 히12:2) 그분으로부터 받은 믿음과 지식을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
- (5) 넷째 '지도자는 공동체에 대해 그릇된 교훈을 경계시켜야 한다.' 사람들이란 조금 알게 되면 모두 안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아무것이나 가리지 않고 습득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이때 지도자는 혼란과 그릇된 교훈으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어야 한다.
- (6) 다섯째 '지도자는 성도들이 경건해질 수 있게 훈련시켜야 한다.' 이 가르침은 당시 헬라의 도시들에서는 경기장이 많아 육체를 단련시킬 기회는 많았으나 정신을 훈련시킬 기회가 적은 데 대해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 (7) 요즈음처럼 교회가 부흥을 하고 곳곳에 많은 예배당이 세워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과 더불어 찾아온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따를 만한 정신적 지도자가 드물다는 것이다(참조, 고전4:15). 이때에 진리의 복음에 바로 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 일꾼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참조, 사6:8).

10. ㉠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 어떤 점에서 좋다고 했는가? (7, 8절)

- ㉠ (1) 혼인의 금지와 음식물의 제한을 강조한 가르침은 경건을 가장하지만 실지로는 경건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모독하는 망령된 교훈들과 진실성이 결여된 떠돌아다니는 민간의 신화(神話)는 전혀 무가치한 것이기에 신앙인에게는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였다.
- (2) 반면에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육체의 연습'이란 고대의 운동 경기자들이 운동장에 나가기 전에 부지런히 훈련하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말로서 신체적인 건강을 얻기 위한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바울은 이 육체적 연습이 조그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그는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를 천시하지 않고 영혼이 그러하듯이 육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
- (3) 이처럼 육체적 연습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듯이, 범사에 유익을 주고 금생(今生)과 내생(來生)에 약속이 있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습하라고 바울은 권면하였다.
- (4) 사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함으로써 현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참조, 창6:8,9),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막10:30).
- (5) 그러므로 우리는 시끄럽고 혼탁한 세상의 교훈들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의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가장 값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참조, 요3:14,15;12:25;17:3;고후5:1-10;갈6:8)

11. ㉠ 참된 경건을 위하여 바울과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그것은 경건에 관해 언급한 8절의 교훈 자체가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걸고 있기 때문이다.
- (2) 바울은 경건이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귀한 진리는 인간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현재의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한다.
- (3)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은 자신의 소망을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두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기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고후4:16-18; 벧전1:3,4).
- (4) 그런데 바울이 소망한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즉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자이시다(참조, 요3:16). 혹자는 이 같은 귀절을 들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론을 펼치지만 그분은 분명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 (5) 다시 말하면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덧붙여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온 정열을 다해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쓸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골1:29; 4:12; 딤후4:7).
- (6) 이처럼 주를 믿는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생명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시125:1; 잠29:25; 사26:4).

12. ⓐ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함으로써 권위를 세우라고 하였는가? (11, 12절)

- Ⓐ (1) 바울은 나이가 많지 않아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불충분하게 보이던 디모데에게 자신 있는 목회를 권면하면서 먼저 가르치는 것과 남에게 본이 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환기시켰다.
- (2) 여기서 '이것들'이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모든 사실들을 가리키는데 작게는 구원의 바른 도리와 경건 생활에 관해 언급한 1-8절의 말씀이며, 크게는 1-4장까지의 모든 교훈을 포함한다.
- (3) 그리고 '명하다'(헬, 파랑겔레)는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의 명령을 말한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한 진리를 근거하여 교회를 가르치라고 하였다.
- (4) 더우기 그가 연소(年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연소함'(헬, 네오테스)이란 군대에 나갈 만큼 다 자란 사람으로부터 40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로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것을 빗대어 한 말이다. 따라서 당시 37-40세 정도이었던 디모데가 나이 많은 장로들과 교인들 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연소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 (5) 그러므로 그가 이 같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온 교회의 본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이들이 결여하기 쉬운 엄숙함과 신중함, 남을 돌보아 주는 일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믿음직함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디모데에게 권고했다.
- (6) 만약 위에 제시한 것들에 대해 모든 교인들 앞에서 본이 된다면 그들은 결코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꼬집어 그를 업신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젊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나친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믿음의 선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온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딤후2:7).

13. **㉠**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디모데가 자신을 바쳐 헌신하도록 명령받은 사항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착념(着念)하는 것이다.
 (2) 여기서 '읽는 것'이란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회당에서 행해져 왔던 성경 낭독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배 의식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런데 그때 읽은 책들은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었다(참조, 골4:16; 살전5:27).
 (3) 초대 교회 당시에는 신앙인들의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전인격을 동원하여 그 모든 내용을 수납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성경 낭독은 그들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4) 계속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눅4:16-30) 읽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해석해야 했다. 성경은 알기 쉬운 책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오묘한 진리를 깨우쳐 주어야 했으며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이단 사상과의 혼돈을 막아야 했다.
 (5)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성도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여야 했다. 즉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이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의 생활이 변해야 하며 행동으로 진리임을 보여야 했다(참조, 약2:20,22,26).
 (6) 이처럼 교회의 영적 성숙과 모든 교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는 좋은 인간 관계나 훌륭한 지도력(통솔력) 그리고 교회 정치의 능숙한 수완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권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한다. 성경에 대한 바른 깨우침이 없이 단순히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쉽게 넘어지고 또한 교회 전체에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14. **㉠**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 내용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말 것을 경계한 것이다.
 (2) 즉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 능력(은사)을 조심해서 사용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그러나 만약 은사를 받은 일꾼이 그 은사를 선하게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분명히 그 일꾼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마25:24-27).
 (3) 이상과 같은 언급을 통해 볼 때 디모데가 부여 받은 목회자라는 위치는 직책상의 지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더 중요시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디모데가 선배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처럼(행13:2)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로 지명되고 성별되었다는 사상도 아울러 내포되어 있다.
 (4) 사실 목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도하는 일로서, 인간의 열심이나 지혜로써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실 때 그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즉 목회자가 예언의 말씀으로(1:18) 성령에 의하여 임명될 때에 그리고 장로들이 그의 위에 안수할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권위와 자기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주어진다(참조, 행8:17;9:17;19:6).
 (5)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많다. 은사를 소유한 자들은

바울이 본절에서 명한 바와 같이 그것을 자신의 명예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받은바 은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그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고전12:4-11).

15. **㉠** '장로의 회'와 '안수' (按手)에 관해 설명하라 (14절).

- ㉠** (1) 먼저 '장로의 회'란 원래 유대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유대의 최고 권위 기관이며 사법 기관인 산헤드린을 일컫는 말이었다(참조, 눅22:66; 행22:5).
- (2)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초대 교회 정치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회의 중대사를 논하는 의결 기관이자 성례전을 집행하던 단체로 직제화 되었던 것이다(참조, 행20:17). 바울도 이 장로의 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것 같다(참조, 딤후1:6).
- (3) 이 '장로의 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미비하다. 그런데 초대 교부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에 이르러 장로가 감독과 명백히 구분되고 교권상의 계급에서 감독 다음의 서열에 서게 되기 전까지 감독과 더불어 성직을 임명하는 일에 봉사하였다(참조, 4:14).
- (4) 한편 '안수'란 은혜(은사)나 권위, 축복 또는 능력 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다. 이 또한 옛부터 전해 오는 유대인들의 관습으로서 주로 권력과 위엄을 지닌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에 의해 실행되었다(참조, 창48:14; 민8:10,11; 왕하4:34).
- (5) 이러한 관례가 초대 교회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감독을 위시한 '장로의 회'에서 병든 자(참조, 막6:5; 눅4:40)와 성령의 내주가 필요한 자(참조, 행19:6)에게 실시되었으며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때(참조, 행6:6) 또는 축복을 빌 때(참조, 막10:13) 등에 실시되었다.
- (6) 본절에 언급된 디모데의 안수도 바로 위의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단순히 인간의 의식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장로의 회'의 안수를 통해 부여받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 (7)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사와 권위를 교회의 대표자들에 의해 부여받은 그 직책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목회의 권한을 부여받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자신의 영예와 만족만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자들이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께서 부여하신 직책은 오직 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6. **㉠**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당부를 하였는가? (15절)

- ㉠** (1) 바울은 자신이 교훈한 모든 일에 전심 전력(全心全力)하여 디모데 자신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 여기서 '모든 일'이란 목회자로서 수행해 나가야 할 일, 즉 성경 읽기, 설교하기, 가르치기,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성숙시키는 일,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일 등과 관련된 말이다(참조, 12-14절).
- (3) 디모데는 이 같은 자신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신앙과 인격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야 했다.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근본적인 척도는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성도들은 입술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통한 메시지를 원한다.
- (4) 하나님과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는 항상 더 나은 신앙과 인격을 갖추기 위해 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구태 의연한 설교와 게으르고 본받을 것 없는 삶을 사는 목회자는 이미 자신의 목회 생명이 다한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목회자는

자신이 실패하게 되면 많은 영혼들이 또한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17. **㉠** 바울이 본장을 통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명령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디모데가 스스로 조심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다.
 (2) 즉 그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청렴(淸廉)해야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신이 전하는 그 교훈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며 살펴야 했다.
 (3) 이는 가르치는 자의 올바른 자세를 규정하는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는 남을 가르치기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배우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사실 가르치는 자가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타인에게는 교훈과 권면으로 가르치지만 자신은 전혀 혼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참조, 고전9:27).
 (4) 또한 그는 자신이 가르칠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여 배우는 자들에게 보다 나은 영(靈)의 양식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 게으른 목회자는 양들을 영양 실조에 걸리게 한다.
 (5) 그런데 만약 그가 이 같은 충고를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그에게는 두 가지 성취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며(참조, 빌2:12), 둘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
 (6)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말씀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참조, 고후13:5) 또한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하여야 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과하거나 약하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7) 참으로 훌륭한 목회자는 자신과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날마다 천국 시민의 생활을 하는 자이다. 이러한 영혼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전에 이르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부장의 요상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군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

제 5 장 목회 행정과 목회자의 태도

단락구분 1-2 성도들을 대하는 옳은 자세 / 3-7 과부들 선대하라 / 8 가족 부양의 의무 / 9-13 참과부의 기준을 제시하다 / 14-16 젊은 과부는 재혼하는 편이 낫다 / 17-20 장로에 대한 대우 / 21-25 목회자로서 신중한 행동을 하라

-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 2 늙은 여자를 어머니께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 3 참과부인 과부들 경대하라
-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 5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 6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 7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욕심이 덜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 11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 13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망령된 꾀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 14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 15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 주고 교회로 집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 주게 하려 함이니라
-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 19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 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지 하지 말며
-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 내(內)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그리고 목회자로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기술(記述)하고 있다.
- (2) 특히 목회자 신분으로서 신분과 연령이 각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
- (3) 먼저 과부에 대해서는 그들 중 참과부는 잘 대우해야 하며(3절) 행실이 선한 과부

중 60세가 넘은 사람은 명부에 올리라고 명한(10절) 반면에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새 가정을 꾸미기를 권하였다(14절).

- (4)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잘 예우(禮遇)하여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17, 18절)고 역설하였다.
- (5)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훈계로 자신이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지시들을 편견이 없이 지켜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를 치리(治理)하는 목회자들은 인간적인 판단에 의존하지 말고 언제나 말씀과 사랑과 진리에 입각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질서를 바로잡게 되고 복음 전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2. **㉠ 바울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는가? (1, 2절)**

- ㉠** (1) 신앙의 연조(年條)가 길든 짧은 함께 신앙 생활하는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처럼 존경해야 하며(참조, 레19:32) 깨우칠 일이 발생하면 고자세로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꾸짖다'(헬, 에피플레소)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퍼붓는 거칠거나 우악스러운 질책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이 다루어서 안 된다. 노인을 존대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이 윤리이며 이런 윤리마저 무시하는 종교, 즉 비윤리적인 종교는 거부되어야 마땅하다(참조, 엡6:1-3). 만일 그들의 잘못을 고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권해야' 한다.
- (4) 여기서 '권하다'(헬,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 옆으로 따로 불러 내다는 의미로서 결국 '권면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5) 사실 제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상대방을 향한 분노의 표출과 모욕적인 질책은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 (6) 이처럼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회 전체가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권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권하는' 것이 도에 지나쳐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꾸짖음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길 뿐이다. 특히 인생의 선배인 노인들에게 대한 젊은 목회자의 태도가 오만 불손하다면 비록 그 경책하는 내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크게 실효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교회 안과 밖에서 빈축을 사게 된다.
- (7)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항상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과 동시에 인간의 원초적 요구인 나이 많은 자에 대한 예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인은 그 몸과 마음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음을 깨달아 항상 관심과 배려와 사랑에 근거한 권면을 하여야 한다. 성도들의 행동의 가장 뚜렷한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참조, 요일4:11).

3. **㉠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자와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권면했는가? (1, 2절)**

- ㉠** (1) 목회자가 간혹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그들에게 일할 만한 용기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한 형제이며 한 자매이다.
- (2)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누구를 불문하고서라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단어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의 구성 상태를 가장 적합하게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고전12:26,27). 교회의 젊은이들과

한데 어울려 주의 말씀을 공부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격없이 나누고 진지한 상담을 펼치는 목회자는 예수의 마음을 심분 이해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 (3) 한편 목회자(남자 성도들도 포함)는 젊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절과 순결로 대해야 한다. 본절에서 말하는 '깨끗함'이란 단순히 성적(性的)인 정결 뿐 아니라 마음과 육체 전체를 통틀어 아무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4) 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에 그만큼 서로간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교제 가운데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한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 (5) 이처럼 목회자들은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젊은 성도들에게 그 가능성을 인정해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과 더우기 그들이 바로 성(聖)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격려하며 일절 깨끗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 (6) 목회자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다.

4. ㉠ 바울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했는가? (3절)

- (A) (1) 그는 참과부, 즉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돌보아 줄 친척(자신의 자녀까지도)마저도 없는 외로운 여자를 경대하라고 했다. 물론 본문에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 뿐 아니라 생계 능력이 없어 남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자에게까지 도움을 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2) 여기서 '경대하다'라는 말에는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원조까지도 아끼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 (3) 따라서 본절은 '참으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돌보라' 혹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를 돌보라'는 뜻을 갖고 있다.
- (4)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과 더불어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의 성행으로 인해 남편에게 버려져 혼자된 여인들도 많았다. 따라서 당시 교회는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였다(참조, 행6:1).
- (5) 성경에서는 이곳 뿐 아니라 과부를 보살피 줄 것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구약에서는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으며(참조, 신10:18;24:17;시68:5;149:9)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참조, 출22:23). 또한 과부에 대한 배려가 곧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참조, 사1:17,18).
- (6) 한편 신약에서도 과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다(참조, 막12:42,43;눅7:11-17;18:3,5). 더우기 초대 교회 안에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큰 원인으로 과부를 보살피는 일을 들 수 있다(참조, 행6:1-6).
- (7) 그런데 초대 교회 안에서는 과부와 외로운 자들을 돕는 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으므로(참조, 행6:1-4) 교회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에 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 (8) 오늘날 교회들은 적은 예산만을 구제비로 할당하고 있으며 구제 대상의 선정도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 (9) 그러므로 교회는 지혜롭고 능률적으로 구제를 하되 단지 얼마의 물질만을 나누어 주는 선심을 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형제들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도움을 받고 나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즉 도움받는 자가 참으로 유익이 되는 구제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선행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한 단면이다(참조, 약1:27).

5. ㉠ 과부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인가? (4절)

- A** (1) 과부의 가정 교육을 의심하여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초대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목회자를 위시한 교회 전체가 그 과부의 가정에 아버지 대신으로 자녀에게 대한 바른 가정 교육을 실시하여 그 과부에게 근심을 덜어 주는 실제적인 보살핌을 하라고 권했던 것이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과부의 자녀나 손자는 자기 집에서 효(孝)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 (2) 한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을 봉양해야 하는 자녀들의 의무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의 종교적 의무에 속하였다(참조, 신10:18;24:17;시68:6;사1:17).
- (3) 초대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바른 인간의 질서라 할 수 있는 효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모형임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엡6:1-3). 사실 보이는 부모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또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출20:12).
- (4)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마땅한 도덕이며 종교의 덕목으로 전해져 왔으나 요즘은 사회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 그러한 사상은 많이 퇴락했다.
- (5)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특별히 혼자서 가정 교육을 감당하기 힘든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6. **Q** 참과부의 자격을 말하라(5, 6절).

- A** (1) 참과부란 남편 있는 자와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여자라는 의미이다. 바울이 여기서 참과부의 자격을 정한 것은 시시 비비가 없이 구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였다. 즉 구제를 집행하는 집사들(참조, 행6:1-6)이 정에 이끌려 경제 능력이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구제하고 반드시 구제받아야 마땅한 가정을 소외시킨다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를 것이다.
- (2) 바울이 제시한 참과부는 외로운 자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다(참조, 눅2:37).
- (3) 생계 능력이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인격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 하나는 완전한 좌절일 것이고 또 다른 반응은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다(참조, 시50:15;123:12).
- (4) 한편 당시에는 사회 전체가 풍요롭지 못했으며 고용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부들은 교회의 일을 거들어 주면서 생계를 잇든 아니면 매춘(賈春) 등의 부도덕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 (5) 그러므로 교회는 '참과부'를 경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어야 했다.
- (6)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는 복음 전파 사업과 아울러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바이기도 하다(참조, 눅12:33).

7. **Q** 바울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가족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8절)

- A** (1) 신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고 가족의 평안을 꾀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2) 이것은 일반 성도 전체를 향한 교훈으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야 어떻든 간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할 만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원초적인 책무를 무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말이다(참조, 롬2:14; 고전5:1; 빌4:8).
- (3)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 이혼한 부부 사이의 자녀들이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늙고 병약한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되는 등의 가정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한 가정의 일로 그치지 않고 교회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 (4) 만약 신앙인의 가정에 이러한 불성실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하고 당신을 신앙한다고 떠벌이는 자의 예배와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참조, 사 1:10-17). 즉 이들의 열매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실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성실한 봉사와 희생적인 사랑을 당신을 참되게 신앙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신다(참조, 마25:34-40).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인간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참조, 약1:27). 이런 사실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분명히 죄이다(참조, 약4:7).

8. ㉠ 과부로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9, 10절)

- (A) (1) 여기서 과부로 명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교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기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자들은 나이가 육십이 넘어야 하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한다. 또한 선한 행실(行實)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한다.
- (2) 첫째, 하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생계 능력이나 재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처일 것이다. 즉 그 나이가 되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둔 것 같다.
- (3) 둘째, 당시는 결혼 관계가 문란하고 이혼이 잦은 시대였으므로 교회의 과부 명부에 오를 사람은 순결과 정조의 모범이 요구되었다. 물론 이 같은 규정은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재혼을 방지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교회 전체를 향한 덕스러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되어야 한다.
- (4) 셋째, 그들에게는 젊은 날 교회와 이웃에게 선한 사업을 했던 증거들이 있어야 했다. 그 사업 중에는 자녀의 양육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자녀 뿐 아니라 고아들도 성심 성의껏 돌본 사실을 말한다.
- (5) 넷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 이는 숙박 시설이 미비했던 그 당시 성도들이라든 누구나 실천해야 할 미덕이었다. 즉 성도들은 여행하는 형제들 또는 의지할 곳 없이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했다(3:2).
- (6) 다섯째,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은 종이냐 하는 천한 일로서 여기서는 이웃과 나그네를 위한 겸손하고 헌신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명예도 칭찬도 초월할 수 있는 일군이여야 한다(요13:5).
- (7) 여섯째,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일이다. 교회라는 유기체에서는 어떤 한 개인의 아픔이 곧 교회 전체의 아픔으로 화(化)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12:26). 만약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교회와 그 소속원들은 병들었거나 죽은 상

태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환난에 처한 형제를 돌보아 주는 일은 성도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그 일을 행한 자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 (8) 일곱째, 모든 선한 일을 좇아야 한다. 즉 이것은 단순히 선한 양심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온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 (9) 이와 같이 그의 삶이 정결했고 교회의 덕을 끼쳤으며 지금도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될 만한 늙은 과부들에 대해 교회는 그들의 여생을 책임지고 보살피 주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이때 교회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 효(孝)를 생활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거룩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할 것이다.

9. **㉠**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젊은 과부들은 아직 니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2) 여기서 ‘젊은 과부’란 60세 이하의 사람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 젊은 과부들이 교회의 인정을 받아 일평생 헌신을 서원하고 교회의 구제 대상이 되었다가도 결혼할 기회가 생기면 봉사 활동을 그만 두고 결혼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 (3) 여기서 ‘정욕으로’란 말은 젊은 기력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젊은 과부들은 아직 젊은 기력이 남아 있어서 재혼할 남편감이 생기면 자기가 일평생 헌신을 다짐했던 교회의 직분들을 과감히 내어 놓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 (4) 그런데 과부의 재혼 그 자체는 죄가 아니나 재혼을 병자하여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바 직분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사랑과 헌신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 (5) 한편 ‘처음 믿음을 저버린다’는 말은 예수께 대한 신앙을 변질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녀가 과부의 명부에 등록할 때 행한 맹세(재혼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평생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등)를 저버렸다는 의미이다.
- (6) 결국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악행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며 자기 양심과 이웃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젊은 과부에 대한 구제 활동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10. **㉠** 바울이 말한 젊은 과부들의 그릇된 행동들은 어떤 것들인가? (13절)

- ㉠** (1) 그 당시 할 일 없는 젊은 과부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옮기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 문제거리만 만들었다.
- (2) 이것은 그들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 즉 그들은 신앙 생활을 게을리함은 물론 자신의 일상 생활마저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긴장되어 있지 못하고 쉽게 남의 말을 하게 되며 교회 전체에 분란을 초래하는 악담이나 거짓말 또는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
- (3) 그렇지 않고 그들이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분주하게 생활할 때에는 결코 타인의 험담이나 하고 다닐 시간이 없을 것이다(참조, 잠25:7; 딤후2:5).
- (4) 그러므로 흠뻑으로 자유스런 생활을 하는 과부 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항상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시키고 더 나아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의 게으름은 곧 나와 이웃과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 뿐이다.

11. **㉠** 젊은 과부들을 위한 바울의 충고는 무엇인가? (14절)

- ㉠** (1)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대적'이라 함은 사단이나 혹은 교회를 비방하는 무리를 가리킨다.
- (3) 바울은 늘 교회가 외부 세계로부터 악평의 대상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해 왔다. 또한 당시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성도들의 친교와 변화된 생활이었다(참조, 약2:7; 벧전2:12; 4:4,14,15).
- (4) 이러한 관점에서 젊은 과부들이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밈은 그 자신에게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쳤다.
- (5) 즉 바울은 과부의 재혼을 권장하였으며 여자들의 특권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아이를 낳고 집안을 관할하는 일을 적극 추천하였다. 이처럼 자기의 일에 충실할 때 교회는 펴론(13절)에 휩싸이지 않을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 (6)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평안한 삶과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12. **㉠**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란 무슨 의미인가? (15절)

- ㉠** (1) 처음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교회에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자가 된 것을 뜻한다.
- (2) 즉 젊은 과부들 중 믿음의 길에서 떠나 부정한 남녀 관계와 같은 일을 저질러 타락의 길로 들어선 자들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물론 환경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로 빚어진 일이다.
- (3)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믿음 생활을 포기한 자는 반드시 사단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젊은 과부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나약함을 한탄하며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탄식한 적이 있다(참조, 롬7:17-24).
- (4)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지 말고 항상 타락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해야 한다(참조, 히12:2).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앞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13. **㉠** 믿는 여자들로서 과부의 친척되는 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들은 친척 과부를 도와 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는 교회로 하여금 참과부를 도와 주게 함이다.
- (2) 여기서 '믿는 여자'란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그녀가 과부이든,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여자이든, 아니면 건실한 믿음의 가정의 여자이든 그녀의 친척 중에 과부가 있는 자로서 친척 과부를 도와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3) 이렇게 유족한 여자가 자신의 친척인 과부를 돌보아 줌으로써 교회가 참과부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갖는 데 힘이 될 수 있다.
- (4)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교회의 제도적인 구제 기능을 떠나서 성도들은 설혹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는 도와 줄 수 있어야 한다(4,8절). 자신의 주위 친척(가족)을 돌보지 않으며 대교회, 대사회에 봉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5) 도움이란 결코 자신의 자비와 구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기 친척 또는 이웃과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참조, 잠19:17; 마19:21).

14. **㉠** 교회는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17절)

- ㉠** (1) 교회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

- (2) 여기서 '다스리다'(헬, 프로이스테미)라는 말은 교회의 감독권(치리권)을 의미하는데 주로 행정적인 업무의 일을 말한다. 또한 '배나 존경할'이란 말은 '배나 지불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예우 뿐만 아니라 물질적 공급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 (3) 따라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장로에게는 존경과 적절한 보수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게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요즈음으로 말하면 목사 또는 감독들)은 더 잘 대우해야 한다는 말이다.
- (4) 사실 한 교회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고 교육과 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정신적인 예우 뿐 아니라 물질적인 배려도 아끼지 않는 것은 성경이 명하는 바로서 정당한 것이다(참조, 갈6:6). 교인들 중에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목회자 예우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발상으로서 자신의 영혼보다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진 자의 악행이다.
- (5) 한편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장로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기지만 목사들은 교회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에 있어서 교인들도 목사들을 잘 섬겨야 하겠지만 목사들도 지나친 요구를 하여 교회의 재정을 어렵게 하거나,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소한 목회자들은 물질에 있어서만은 초연(超然)하길 바라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마음이다(참조, 살전2:4; 살후3:7-9).

15. ㉠ 초대 교회에 있어서 장로는 어떠한 직책이었는가? (17절)

- ㉠ (1) 장로(헬, 프레스부테로스)란 교회 안에서 제일 오랜 교직이다. 유대교에도 장로가 있었는데 그 기원은 모세의 70장로까지 소급된다(민11:16).
- (2) 유대 사회에서는 회당마다 장로가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며, 회당의 예배를 사회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을 견책, 훈련하고, 백성들 가운데 발생하는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다툼과 분쟁을 판가름해 주었다.
- (3) 그런데 초대 교회에서 장로와 감독(헬, 에피스코포스)은 별로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여진 직책들이다. 즉 교회마다 장로가 있었는데(행14:23) 이들은 교인을 돌보아 주는 감독들이라는 말로 언급되기도 했다. 한편 목회 서신에 나타난 장로와 감독의 자격은 동일하였다(3:2-7; 딤후1:6-9). 또한 바울은 같은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장로라, 다음에는 감독이라고 칭하기도 했다(행20:17, 28).
- (4) 그러나 같은 직책으로 여겨진 장로와 감독 사이에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었다. 즉 엄격히 말해 장로는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맡고 있는 어른이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연로하고 경험있는 자들 중 공동체의 존경을 받는 자가 장로의 직임을 수행했다.
- (5) 반면에 감독은 교회의 생활과 교육과 사업을 감찰하는 직능과 직무를 가리킨다.
- (6) 오늘날 교회 조직(특히 장로 교회) 안에 정착된 장로와 목사직(감독직)은 초대 교회에 존재했던 장로와 감독직의 발전되고 전문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 장로란 주로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목사는 가르치는 일과 교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장로의 직책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두 직책의 존재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한 것이지 자신의 치부와 권위(권력)를 획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16. ㉠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8절)

- ㉠ (1) 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일임을 뜻하는 말이다.
- (2) 그런데 이 귀절은 신명기 25:4로부터 인용되었으며 '일군이 그 값을 받는 것이 마땅

하다'라는 귀절도 눅10:7에서 인용하였다.

- (3) 한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작 방법은 곡식단을 풀어 타작 마당에 퍼 놓고 그 위를 소가 지나가게 하거나 소가 끄는 타작 기구가 지나게 하였다. 그때 주인은 소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동안 그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했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말씀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충분한 곡식을 제공하는데 하물며 주께 대한 봉사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과 정력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고전9:9,14).
- (5)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숨어서 봉사하고 있는 일군들에게도 사랑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내어 일을 하는 자는 자신의 자비와 능력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러내지 않고 봉사하는 일군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충성을 실천한다(참조, 마6:3).

17. **㉠** 장로에 대한 송사(訟事)는 어떤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가? (19, 20절)

- ㉠** (1) 두세 증인이 없으면 송사가 성립될 수 없다. 반면에 범죄(犯罪)한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여야 한다.
- (2) 장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과 밖에서 늘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혐의가 없는 사실로부터 장로를 보호하기 위해 장로를 고소하려면 항상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었다.
- (3) 한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죄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는데(신19:15) 이 같은 규정은 무흠한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초대 교회에서도 적용되었다(마18:15-17; 고후13:1).
- (4) 그러나 일단 장로의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징계를 온 교회 앞에서 행하여 다른(나머지) 장로들로 두려워하게 하여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
- (5) 일반적으로 징계를 남용하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가 거칠고 메마르게 되지만 징계를 소홀히 할 경우도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에 입각한 정당한 치리는 마땅히 실행되어야 할 교회의 책무이다.
- (6)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 목회자들과나 직분자들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목회자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制裁)가 없다면 한국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참조, 겔34:2,3; 숙11:17).

18. **㉠** 바울은 자신의 명령의 권위를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21절)

- ㉠** (1)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징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고 애썼다. 그 한 예로서 그는 지도자들의 치리 문제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명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이 결코 경솔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 (2)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타락한 천사들과 대조되는 선한 천사들로서(참조, 위경 예복서39:1)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계18:1; 19:17; 20:1; 21:9).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거짓이 없이 목회자의 징계 문제를 논한다고 했던 것이다.
- (3) 한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란 표현은 예배 의식적인 표현으로서 이 세 존재가 최후 심판에 참여(參預)할 것이라는 사상에서 언급되었다(참조, 막3:38; 눅9:26; 계14:10).

(4) 이처럼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현한 다음 신중하게 권면의 사역을 수행해 가야 한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그분이 개설할 심판대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행동이 앞서고 말이 많아진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요구된다.

19. **㉠** 디모데는 바울의 교훈을 어떻게 실천하여야 했는가? (21절)

- ㉠** (1) 아직 나이가 없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는 바울이 제시한 여러 교훈들을 편견이 없이 지켜 아무 일도 편벽(偏僻)되게 하지 말아야 했다.
- (2) 즉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는 결코 자신의 선입견에 의해 일을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사랑과 의(義)에 입각해서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그러나 지도자가 편견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억압과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자세는 항상 공의(公義)로와야 한다(참조, 약2:4). 만약 이런 자세가 흐트러지는 날이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것이며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게 될 것이다.

20. **㉠** 성급한 판단 외에 목자로서의 디모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2절)

- ㉠** (1) 먼저 그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 즉 회개와 깨달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수해서는 안 된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자에 대한 안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 (2)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 안수할 때 신앙 인격이나 성실성 또는 구원의 확신 등을 확인해 보지 않고 단순히 유명 인사나 재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안수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환란을 불러들이는 격이 된다.
- (3) 둘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즉 주제넘게 타인의 허물을 들추어 내거나 그것에 동조한다거나 또는 방임하지 말고(참조, 마27:24)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안정을 찾고 교인들 각자는 평안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
- (4) 세째,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여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경건이기도 하다(참조, 약1:27). 이런 경건을 통하여 세상은 서서히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선한 열매를 맺힐 때 교회는 분명 그 모범을 따라 생활하게 될 것이다(참조, 4:12-16).

21. **㉠** 바울이 디모데 개인을 위해 주는 권고의 말은 무엇인가? (23절)

- ㉠** (1) 몸이 몹시 쇠약해져 있는 디모데를 심히 걱정하면서 속병(病)의 치료를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는 것이다.
- (2) 이 귀절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영적 아버지로서의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다.
- (3) 한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금욕주의적인 계율이 있어 왔다. 즉 나실인 서약자는 포도주나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않았으며(민6:1-21), 레갑인들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렘35:5-7).
- (4) 더우기 디모데 역시도 자기 생활에 어느 정도의 금기 조항을 마련해 두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으며 몸이 약하여 자주 병으로 고생하였던 것 같다. 여하튼 포도주의 효용성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바울은 적당량의 포도주(과음은 오히려 몸을 해침)를 사용하여 위를 강하게 하도록 권했다.
- (5) 22절까지 장로의 규례에 대해 엄격한 명령을 하던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 개인의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도록 권한 것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 결코 금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4:1-5). 더우기 이 권고는 쾌락주의를 권장하는 말이 아니다.

- (6) 여기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강을 해칠 만한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참조, 4:4).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방종을 허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철저히 응징하신다.

22. ㉞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은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 (24, 25절)

- ㉞ (1)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저절로 드러나게 마련인데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 (2) 어떤 죄악이나 선행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악도 선으로 가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3) 겉으로는 선을 가장한다 하더라도 모든 행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심판하실 것이다(전12:14). 반면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다.
- (4)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목회 사역을 감당할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사상이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참조, 히4:12).
- (5)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악이 횡행(橫行)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다(참조, 갈6:9,10). 우리는 단지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 된다(참조, 벰전5:7).

본장의 요절

'누구든지 자기 진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8절).



제 6 장 영원한 것을 소유하라

단락구분 1-2 종의 도리 / 3-5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 / 6-10 탐욕의 위험 / 11-16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훈계 / 17-19 부자들에게 주는 교훈 / 20-21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교훈

1 무릇 땅에 아래 있는 중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4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혔도다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흠도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뉘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21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 ㉠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훈계는 무엇인가?

㉠ (1) 바울은 디모데 개인을 향한 훈계와 함께 당시 초대 교회에서 문제가 될 소지(素地)가 있는 여러 주제들을 들어 교훈하였다.

(2) 즉 바울은 당시 사회 제도 중 하나였던 노예 제도하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였으며, (1,2절) 초대 교회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로 인해 발생할 불경(不敬)과 교만에 대해 경고하였다(3-6절).

(3) 또한 부자들과 그 부(富)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훈계하였다(7-10, 17-19절).

- (4) 한편 디모데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바울의 교훈을 지키며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되 책망받을 것이 없이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명하였다(11-16, 20, 21절)
- (5) 바울 당시의 부패했던 사회상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호흡하는 사회 전체는 부정과 부패와 불륜 그리고 불경건 등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암울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빛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참조, 시 119:105)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시며 경건에 힘쓰며 맡은 사명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신다.

2. ㉠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이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주인의 권위 아래서 생활해야만 했던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멍에'란 무엇을 끌기 위해 짐승의 목에 메는 기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결국 그 당시의 노예들이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 로마 제국은 외국과의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하여 많은 식민지와 노예들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런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주위의 약소 국가들로부터 노예들을 수입할 수 있었다. 또한 가난한 자유민들 중에 빚을 청산하지 못하여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 (3) 그 결과 로마는 노예의 노동력으로(자유민보다 노예의 수가 약 4배 가량 많았다고 함) 유지되는 도시가 되었고(심지어 군인까지) 자유민들은 일손을 놓고 육체적 향락과 사치로 시간을 보내었으며 노예와의 불륜 등으로 사회 전체가 극도로 타락해 갔다.
- (4) 이러한 정황 아래 있던 로마에 진리와 자유를 주창하는 기독교가 접목되자 당연히 노예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인 노예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멍에'를 벗는 작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 (5) 이에 대해 바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본절의 내용으로 충고하였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가르침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바울이 뜻하는 바는 주어진 현 상황(제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소속된 자이다.

3. ㉠ 종들이 자신들의 상전들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가르침에 손상을 입히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노예(종)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불손하거나 자신의 일에 태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주인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노예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했다.
- (3) 사실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여 불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게으르거나 불성실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비난할 거리만 세상에 주게 된다.
- (4) 따라서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노예의 신분인 성도들은 그의 상전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것이다.
- (5)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의 노사(勞使)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는 자신의 사용주(使用主)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2:9).

4. ㉠ 사회악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오직 사랑과 인내로써 이 세상의 악이 소멸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
- (2) 왜냐하면 피는 피를 부르고, 악을 소멸시키겠다고 싸우는 자들의 방법이 악하며, 그렇게 되면 결국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 (3) 만일 혁명이나 물리적인 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Utopia)가 건설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도 혁명 투사가 되셨을 것이다.
- (4)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끝없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으셨다(참조, 히12:2,3).
- (5)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악에 대한 효과적인 응징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르고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랑과 인내만이 이 세상에 피흘림이 없는, 억눌림이 없는, 미움이 없는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 (6) 한편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며 거듭난 그들이 사랑과 인내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12:24).

5. ㉠ 1, 2절에 나타난 바울의 훈계는 결국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 ㉠ (1) 실제로 초대 교회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여 그 제도를 없애거나 그 제도에 대항하지 않았다.
- (2)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태도였다. 만일 교회가 노예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 제도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면 교회는 반란과 선동의 책임을 지고 폭력 집단으로 오인되고 말았을 것이다.
- (3)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써 위정자(爲政者)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스스로 노예를 해방하게 만들었다.
- (4) 이처럼 사랑과 인내의 방법은 매우 지루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방법이 부패한 인격과 사회에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지지했다기 보다는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 (6)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사악한 정신과 타락한 제도를 개선해 가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면 보다 많은 '내'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참조, 마7:3-5).

6. ㉠ 믿는 상전이 있는 노예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절)

- ㉠ (1) 믿는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이 주 안에서 한 형제라 하여 게으르거나 거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더불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더욱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
- (2) 더우기 자신들의 봉사료 유익을 얻을 자인 상전이 바로 자신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서로 사랑해야 할 주 안의 형제라는 사실은 자신의 권리를 최대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맡은 일을 더욱 성실하게 행하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 (3) 오늘날 노사간(勞使間)에 있어서도 모두가 믿는 이들이라면 먼저 서로 아껴 주고,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7:12).

7. ㉠ '바른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 A** (1) 그것은 다른 교훈, 즉 이단 사상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한 말까지도 포함한다.
- (3) 따라서 이 '바른말' 속에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한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울러 포함된다. 이것은 분명히 성도들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며 성도들이 생활 속에 실천해야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있다.
- (4)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바른 삶을 교육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권위는 인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 (5) 즉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권위가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경 해석에까지 그 근거를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 (6) 아울러 그러한 근거 위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은 결코 자신들의 사사로운 생각을 전해서는 안 되며 항상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본래의 의미를 찾아 전해야만 한다는 뜻은 담고 있다(참조, 겔2:7).
- 8. C** 초대 교회에 있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던 이단의 무리들은 주로 어떤 자들이었는가? (3-5절)
- A** (1) 당시 헬라 세계에는 '소피스트'(Sophist)라 불리던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진리를 가르치기 보다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주입시키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 그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기를 등한히 하였다.
- (2) 더우기 그들은 웅변과 변론술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으며 케변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따라서 그들은 진정한 철학을 한다기 보다는 말장난으로 돈벌이를 하는 자들이었다.
- (3) 그런데 당시 초대 교회에도 이와 유사한 논쟁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영지주의(靈知主義)에 물든 자들로 이단 사상을 교회에 가만히 끌어들이며 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참조, 공동 서신 서론 ㉠5-8).
- (4) 더우기 이들은 아는 것도 없이 허황된 지식에 빠져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이었으며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변론을 일삼고 자신들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이었다(1:3,4).
- (5) 이처럼 가짜가 진짜의 탈을 쓰고 활보하는 일은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끊이지 않던 일이지만 그들의 말로(末路)는 하나같이 허무하였다(참조, 벧후 2:9-22).
- 9. C** 바른말을 좇지 않고 다른 교훈을 좇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가? (4, 5절)
- A** (1) 경건에 이르는 교훈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단 사상을 좇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교만하다.
- (2) 그는 진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최고인 양 자랑하며 쓸데없는 말 싸움과 어리석은 질문들을 뇌까린다(참조, 딤후 2:23).
- (3) 이렇게 진리에서 멀어진 자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사상을 이웃에게 주입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 타인의 인격을 스스로 없이 짓밟고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을 조장하며(참조, 약3:16) 항상 남을 해할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 (4) 이와 같이 생각과 행동 모두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는 양심과 이성의 판단마저도 더러워져 결코 바른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즉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된다.
- (5) 결국 그는 종교 또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경건을 가장하여 자신의 치부와 명예를 확보하려 한다. 이처럼 타락한 종교인은 타인에게 결코 유익을 끼치지 못하며 항상 자신의 주머니를 생각하며 교회 안의 분쟁을 조성한다.

- (6)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보다는 그릇된 자신의 주장만을 일삼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바른 신앙을 찾자는 데 있다기 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이권(利權)과 지식을 자랑하자는 데 있다(참조, 행17:18). 참된 목회자는 자신의 인간적이 자랑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자라 할 수 있다.

10. ㉠ '지족(知足) 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6절)

- ㉠ (1) '지족'(헬, 아우탈리케이아)이란 스토아 철학 중의 한 표어였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자족'(自足)을 가리킨다. 즉 밖의 모든 사정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온전한 심적 평화를 가지는 상태이다.
- (2) 그런데 그 '지족'이란 이단 사상의 전파자들이 회구하는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경건한 마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 (3) 즉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참조, 마6:33;19:29).
- (4) 물론 여기서 말하는 풍족함은 물질적인 부(富)라기 보다는 영적인 풍요함을 가리킨다. 사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요구하지 않는다.
- (5)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행복이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 (6)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결코 가난을 미덕(美德)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얻어진 만족을 얻길 바라는 것이다(참조, 빌4:11). 이처럼 성도는 하루하루가 바로 천국에서 사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1. ㉠ '부(富)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7, 8절)

- ㉠ (1)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足)한 줄로 알아야 한다.
- (2)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성품, 마음, 영혼을 세상 사는 동안에 청결히 하는, 즉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한편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문자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당한 부의 축적마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취하라는 말이라기 보다는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생활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즉 먹고 입을 것에 대한 관심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하심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다(참조, 마6:33).
- (4) 그러므로 이 세상 삶에서의 '자족'(自足)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잊게 하며 하나님과 내세(來世)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참조, 욕1:21; 전5:15). 이 세상에서 행복을 판가름하는 관건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느냐, 얼마나 훌륭한 외모와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느냐, 미래마저도 그렇게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12. ㉠ '부(富)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 (9절)

- ㉠ (1) 인간의 심성 밑바닥에는 무엇을 소유해 보려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죄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물질의 획득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잘못된 삶의 형태이다.

결국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죄악의 울무에 빠져 망하고 만다.

- (2) 이러한 관점에서 본질의 말씀은 곧 불건전한 방법을 불사하고서라도 부하러 하는 자들이 끝내 멸망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그 첫째 단계는 '시험과 울무'에 빠짐을 가리킨다. 오직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마귀의 울무(참조, 딤후2:26)에 빠져 모든 인격과 사건을 이용해서 물질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참조, 약5:1-6).
- (3) 둘째, 그는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된다. 즉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참조, 약1:15)는 그로 하여금 욕망에 눈이 어두운 존재로 만든다. 사실 물질에 지나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 (4)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 '침륵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즉 몸과 영혼의 완전한 파멸에 이르고 만다(참조, 고전5:5; 살전5:3; 살후1:9). 이처럼 물질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구원할 수 없다.
- (5) 우리는 이 같은 말씀(눅12:16-21; 16:19-31)이나 격언들을 수없이 들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결코 불건전한 욕구로 인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히13:5).

13. **㉠** 바울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10절)

- ㉠** (1)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그 돈을 사랑하며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양심마저 더럽히게 된다.
- (2) 그런데 본질에 언급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 교훈을 전한 자들이나 그것을 따른 자들을 가리킨다(5절). 이들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마저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된다.
- (3) 즉 이들은 신앙보다는 물질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에(이들의 신은 곧 돈이다) 신앙을 잃게 되며 결국은 양심의 가책과 영적 고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만다(참조, 눅16:19-21; 갈5:16,17).
- (4) 이상과 같이 불안전하고, 있다가 없어지며 없다가도 있는 이 세상 것 특히 돈을 사랑함은 헛된 것을 사랑함과 같다(참조, 눅12:13-21).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참조, 시89:33; 마24:35; 요6:27; 고후4:18; 벧전1:24,25).
- (5)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들어 돈으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려 드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어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교회 안의 질서와 권위마저도 돈에 의해 결정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

14. **㉠**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10절)

- ㉠** (1) 첫째, 만족시킬 수 없는 갈증을 일으킨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참조, 전5:10).
- (2) 둘째, 재물에 기반을 둔 안전이란 쉽게 무너진다. 사람이 얼마의 재산을 모아 안전을 느끼면 보통 안락과 사치를 꿈꾸지만 재물로는 가장 고귀한 것인 건강, 사랑, 평화, 생명을 살 수 없다. 더우기 재물에 기반을 둔 잠시의 안전과 안락도 믿을 것이 못 된다(참조, 잠23:5; 27:24).
- (3) 셋째, 재물은 사람을 이기적, 경쟁적으로 만든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자는 자기 때문에 남이 아 굶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랑곳 없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타

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참조, 암2:7).

- (4) 네째, 재물은 평안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 재물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을 잃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기부할까 염려하는 걱정이 더욱 크다(참조, 잠2:22,23).
- (5) 다섯째, 재물은 사람을 최악의 길로 인도하여 결국은 고통과 후회 가운데 있게 한다. 즉 재물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양심마저 잃어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이 된다(참조, 욥27:16,17).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재물에 지배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재물을 지배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삶의 분량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여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약5:3).

15. **㉠**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무엇이라 불렀는가? (11절)

- ㉠** (1)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말로 디모데를 불렀다. 이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일깨워 주는 호칭이라 할 수 있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구약 시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 높이 쓰임 받던 인물들에게 붙여졌다. 예를 들면 모세(신33:1; 시90:1), 다윗(대하8:14), 선지자들(삼상2:27;9:6), 엘리야(왕하1:9), 하나님의 사자들(왕상12:22)이 있다.
- (3) 한편 이러한 칭호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시켜 붙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그분이 명하신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모든 이들에게 붙여지게 되었다.
- (4) 인간이 보기에는 우리가 비록 하찮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참조, 벧전2:9)이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인과 구별된 성도이다(참조, 롬1:7; 고전1:2; 빌4:21).
- (5)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부여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옛 습성과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16. **㉠**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11절)

- ㉠** (1) 그는 바울이 지적했던 것들을 피(避)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야 한다.
- (2)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이것들'이란 4-10절 사이에 언급된 멸망의 요인들을 가리킨다.
- (3) '의'(義)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참조, 롬6:5-11)으로서 여기서는 이러한 의를 힘입은 자가 지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책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 (4) 또한 하나님께 향하는 세 가지 덕이 있는데 첫째는 '경건'이다. 평생을 두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경외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참조, 벧후1:3).
- (5) 둘째는 '믿음', 즉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순종하는 미덕을 가리킨다. 세째는 '사랑'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신 일 중 가장 위대한 것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다(참조, 요일4:10).

- (6) 한편 '인내'란 불행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변함없는 경건을 가리킨다(참조, 살전1:3;5:14). 또한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지니는 특징 중 하나로서 형제들에게 인위를 제공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항상 여유있는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마11:29;고후10:1).
- (7)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속에는 그 특권과 더불어 주어진 삶의 자세와 책임이 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자세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뿐인 '성도'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 **㉠**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자세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하라는 뜻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12절)

- ㉠** (1)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배 자격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영생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도 요청되는 삶의 자세이다.
- (2) 여기서 '싸우라'(헬, 아고니존)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는 뜻인데 어떤 종류의 싸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싸우라'는 말을 꾸미는 '선한'이란 말은 '고상한', 혹은 '눈부신'이란 뜻으로 결국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의 육적 싸움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 (3) 즉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혈기를 부리며 감정을 폭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사단이 제공하는 모든 불의한 것들(이단, 거짓 교훈, 정욕, 시기, 음란, 악한 분노 등)과 싸우며 인내하여야 한다(참조, 엡6:12;빌1:31;딤후4:7).
- (4) 한편 '영생'이란 선한 싸움의 결과 주어지는 상(賞)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참고 지켜야만 주어지는 것이다.
- (5)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영생이라 할 수 있다(참조, 마18:8;요6:68;17:23).
- (6) 한편 바울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얻기 위해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특별히 디모데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세례받을 때와 목회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는데(참조, 4:14;롬1:9;딤후1:6),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분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디모데의 부르심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행동으로 응답하고(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함)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 (7) 오늘날 인간들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위해 싸우며 그를 위해 죽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이며 곧 없어질 것을 위해 애쓰지 말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2:4).

18. **㉠** 바울은 디모데의 '선한 증거'를 무엇과 비교하였는가? (13절)

- ㉠** (1)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행한 증거와 디모데의 '선한 증거' 곧 예수께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한 사실을 비교하였다(참조, 마27:22;눅23:3).
- (2) 한편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두 존재 앞에서 엄숙히 증언하셨는데 먼저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였다. 즉 모든 만물의

생명과 영혼과 존재 가치를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며 당신이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할 자임을 명백히 고백하셨다. 이 같은 고백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생명적 합일체(合一體)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 또한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방조 내지 적극 장려함으로 인류 최대의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셨다. 빌라도는 26-36년 사이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매의 총독으로 재임하였으며 예수의 십자가 형을 선고한 자이다(참조, 마27:24-26). 이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 내어 준 자 앞에서와 자신의 죽음을 방조한 자 앞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당신의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다.
- (4)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으며 이런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생활한다는 의식이 있기에 빌라도로 대변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선한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 (5)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떠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이 '선한 증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디모데의 증거 사역은 곧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참조, 행22:20; 계2:13;3:14).

19. **㉠**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지켜야 하는 명령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여태껏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신앙적 권면들 특히 11,12절의 내용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교훈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참조, 3:2; 엡5:27; 약1:27; 벧후3:14).
- (3) 한편 이와 같은 신앙적 열심과 순수성이 한 순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참조, 딤후1:10;4:1; 딤텔2:13).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의 빛에 전주어 조금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삶에 대한 판단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실 것이다(참조, 시58:11; 마6:4; 계22:12).

20. **㉠** 15, 1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가?

- ㉠** (1) 이 찬양은 유대주의적 색채가 강한 승영으로서 유대의 회당에서 사용되었던 신앙 고백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복되시고', '홀로', '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표현들은 그 당시 힘있는 권력자들에게 사용되었던 것과 흡사했던 관계로(눅1:52; 행8:27)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같은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계17:14; 19:16) 사용할 때에는 왕과 황제 숭배에 대한 강력한 반발 의식을 내포하고 있었다.
- (3) 한편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성(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오)과 불가시성(不可視性,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 그리고 영원성(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장엄하신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출33:17-23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 (4)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승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결론을 맺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존귀와 능력'을 돌림으로써 결론을 맺고 있다. 이는 15절의 '능하신'이라

는 말과 잘 조화를 이룬다.

- (5) 이 같은 찬양이 찬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로써 보여질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다(참조, 롬10:10).

21. **㉠**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재림관은 어떤 것인가?

- ㉠** (1)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살전5:1-3).
- (2) 즉 그는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성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그분의 오심을 대망할 뿐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재림을 이야기하였다(참조, 딤후2:13). 더우기 주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요 참 기쁨이 된다.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생활하는 바울과 같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감에 따라 ‘재림의 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예수의 재림 자체마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 (4) 그러나 예수의 재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참조, 제22:20). 즉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이다.
- (5) 그러므로 비록 지체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자라면 주의 재림의 때가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가능성에 따라 긴장하며 그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참조, 살후3:11). 날마다의 삶에 성실한 자는 주의 재림의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22. **㉠**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5절)

- ㉠** (1)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그 첫째는 ‘복되시다’는 것이다. 즉 그분은 복의 근원으로서 당신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그 복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참조, 1:11; 창12:2,3; 엠1:3).
- (2) 또한 그분은 ‘홀로 한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 땅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의미이다(참조, 1:17; 유1:25).
- (3) 그리고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다. 즉 그분은 능력의 근원으로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 (4) 계속해서 그분은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이시다. 즉 그분은 세상의 군주들처럼 한때 권력을 행사하다가 끝내 죽어 버리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삶, 곧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시다. 이러한 생명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살게 하신다(13절).
- (5)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을 어둠으로 묘사되는 사단과 대조하여 ‘빛’이라 표현한다(참조, 요1:9;8:12; 요일1:5). 그런데 이 빛은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그 빛으로 묘사된 그분의 초월성을 강조한다(참조, 출33:17-23; 시104:2).
- (6)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순간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이해하거나 목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과 감각의 한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참조, 출33:22; 요1:18;5:37; 골1:15; 요일4:12,20).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알며 발견할 수 있다(참조, 요12:45;14:9).
- (7) 이와 같이 절대 존재자로서의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바울이 찬양한 것은 곧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시며 자신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분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욱 커지며 결국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고 삶에서 확인된 하나님이신가?

23. **㉠** 부자들이 피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7절)

- ㉠** (1) 본질 이하(17-19절)의 훈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당시의 부자들에게 준 교훈인데 반해 앞에서(8-10절) 이미 언급된 훈계는 ‘부하려는 자들’에게 준 훈계이다.
- (2) 한편 바울이 지금 부한 자들에게 주는 소극적인 권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났다거나 중요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빈자(貧者)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9절).
- (3) 더우기 그 재물의 원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것을 각인에게 나누어 주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가진 자는 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4) 둘째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재물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했다(눅12:13-21).
- (5)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보다는 눈에 나타나는 돈의 위력과 필요에 마음을 빼앗기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며 영원한 것인가라는 사실이다(참조, 마19:29; 요6:27).

24. **㉠** 부자들이 마음에 두고 행할 바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먼저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어야 한다. 즉 살아 계셔서 모든 물질계와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자신의 소유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는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참조, 마6:33).
- (2) 또한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선히 쓸 수 있어야 한다. 더우기 그들은 관대해져야 하며 자신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심은 곧 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모든 이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램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도 재물이 허락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허락하신 그 축복을 혼자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참조, 히 13:16).

25. **㉠** 부자가 재물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19절)

- ㉠** (1)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한다.
- (2) 여기서 ‘좋은 터’란 ‘저축’ 혹은 ‘보화’라는 뜻이며, ‘장래’란 ‘장차 올 세상’ 곧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자체를 뜻한다.
- (3) 그러므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생명을 상급으로 얻을 것이다. 사실 우리의 조그마한 구제와 봉사는 곧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 할 수 있다(참조, 마25:34-40).
- (4)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께서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막10:21)고 말씀하였다.
- (5)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과 조금이라도 서로 돕고 나눈다면 그것은 곧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며, 우리의 물질적인 재산은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부해질

것이다(참조, 잠19:17;마19:21).

26. **㉠**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본서 전체의 교훈들을 지킬 것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는 것이다.
- (2) 즉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기독교적 생활의 규율을 유지하고, 선전하며, 당면하는 여러 가지 종교와 철학적 문제에 의하여 더럽혀지고 왜곡되는 믿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 (3) 여기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란 진리와는 무관한 자들의 입술에서 나와 인간을 실족시키는 지식, 곧 영지주의 및 유대주의의 가르침 등을 가리킨다.
- (4) 이러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살지게 하고 구원의 도리를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혼잡한 말들을 퍼뜨려 교회와 한 인격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다.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진리가 와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딤후2:16).
- (5)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서 떠난 사상들이 난무하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상황과 인기에 영합하여 진리를 왜곡 전달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런 때에 모든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얻어진 교훈들을 전함으로써 혼탁한 영계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교회가 성경을 외면할 때 사단은 사악한 가르침으로 교회에 접근할 것이다.

27. **㉠** 거짓 교훈자들의 교훈을 따르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21절)

- ㉠** (1)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리고 타락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 (2) 즉 허황된 철학에 마음을 빼앗겨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 성경 말씀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만 쌓게 될 것이다(1:6;2:10).
- (3) 인간이 탐구하는 학문과 이상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권위 이상으로 역사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참조, 고후13:5).
- (4) 그러나 이 같은 거짓 교훈들을 과감히 물리치는 진리의 수호자들에게는 비록 이 세상에서 거창한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참조, 요8:32), 하늘의 은혜가 넘칠 것이다.
- (5) 요즈음 세상은 새로운 철학과 과학 사조 그리고 사이비 종교로 혼돈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오직 그 같은 태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며 성숙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참조, 시119:105).

연구자료

교회의 특성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결성된 성도의 연합체이다. 즉 교회는 사람들의 뜻과 노력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심으로 이루어

진 연합체이다. 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불러내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사신 자신의 몫이다(엡1:23).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다(요6:39). 그러기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연합체가 곧 교회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는 사회의 여타 공동체와는 다른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교회의 일체성 (unity)

교회가 하나인 까닭은 그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며 또한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고전12:12-27;엡4:4-16).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연합체라는 점에서 하나이다. 이 같은 일체성은 인종과 남녀, 빈부와 신분의 차이 뿐 아니라 시대와 지역 간의 거리를 초월한다(갈3:28). 그리고 이 같은 교회의 일체성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엡4:3).

2. 교회의 거룩성 (holiness)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 같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 결과 그분의 대속 사역을 믿고 그의 공로를 덧입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었다(롬3:21-28).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거룩하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내주(內住)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자(참조, 갈5:22, 23)이다. 더우기 성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거룩하게 되어야 할 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거룩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교회의 보편성 (catholicity)

이는 교회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 20)고 명령하셨던 것이다.

4. 교회의 사도성 (apostolicity)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일구어 놓은 복음 사역의 터전 위에 교회가 굳게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엡2:20).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능히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이다(마16:18).